

第208回國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9年11月23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教育政策에 관한公聽會

審査된案件

1. 教育政策에 관한公聽會 ..... 1 面

(14시14분 개의)

○委員長 咸鍾漢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教員政策에 관한公聽會

○委員長 咸鍾漢 의사일정 제1항 교원정책에 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원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교원의 질과 사기진작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의 수월성을 논의할 때마다 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마치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심한 자괴심에 빠져있으며 학교붕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토록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탁상공론적인 교육개혁정책과 급격한 교원정년단축이 가까운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

리의 기본적인 교원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추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쓰러져가는 학교를 다시 세우는 것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정부의 교원정책을 비판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국회의 교원정책에 관한 입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교육부 관계관에서도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셔서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수립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일곱 분의 진술인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金明漢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육대학교 金在福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서울교육대학교 金鍾鎬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朴永菽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서울고척고등학교 辛相祚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尹正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끝으로 崔載善 한국초등교육협의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각 진술인의 진술시간은 15분 이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각각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의 발언도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金明漢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金明漢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진입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변화와 개혁의 길목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전환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같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수요건이라 하겠고 이는 교원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교원정책에서도 유자격 교원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한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교원수급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갑작스러운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사퇴로 말미암아 초·중등 교육현장은 교사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9학년도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수급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정 정원이 25만6,826명인 반면 실제 배치인원은 24만3,260명에 그쳐 1만3,56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실제 13만6,945명의 배정에 12만6,294명의 배치에 지나지 않아서 1만651명이나 부족해서 초등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고 내년도 이와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겠습니다.

99학년도 2학기 초등교원 수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인원의 급증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만도 1만755명이 교단을

떠났으며 이 같은 갑작스런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난 5월5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전담교사로 3,833명을 선발해서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에 9월1일자로 임용하여 초등학교에 배치한 바 있고 2000학년도에 부족한 교원충원을 위해 신규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9,113명으로 책정하고 지난 11월3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한 결과를 보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져 초등교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에 445명 모집 인원에 149명만이 원서를 냈고 그 외에도 전남, 강원, 충남, 충북 등 여러 곳에서 지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내년 3월1일을 기해서 기간제 초등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별로 2,40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1,020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이 난립해서 97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2만4,860명 중에서 임용된 자는 4,050명으로 16.3%에 불과하여 한 해만도 2만,800여명의 적체를 이루고 있고 해마다 누적되는 자격 취득자로 인해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는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은 교원수급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 당국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정규임용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임용, 초빙계약제를 통한 퇴직 교원의 재임용,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학급감소 등에 의한 과원 교원의 임용 등의 편법으로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직 교원들의 수업부담과 근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교원수급정책은 62세로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희망 교원의 급증 등으로 인한 교원의 부족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 해결 방식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과조치를 둔 정년단축계획과 종합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에 기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등교원 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과 질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 안정을 통한 명퇴교원의 수를 극소화하고 탄력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초등교원 양성인원의 증원 등 장·단기적인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빚게 된 주원인이 무엇이나를 검토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57세 이상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 이전 65세 정년을 적용하여 병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년 총선 이후 연금관련법이 개정되면 종전의 연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의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문제는 사실보다는 소문에 근거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있게 연금안정대책과 함께 보장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은 두 가지 예가 다 교육부의 교원정책 빈곤에서 파생된 현상이라 볼 수 있겠고 명예퇴직자수는 교단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극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등교원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현재 3,833명을 기간제 전담교사로 임용한 바 있으나 초등교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전담교사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교과전담교사로 초등에 남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하여 교육부 당국의 담임 임용 방침으로 인해 이들은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들을 초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교과전담교사로서의 임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교원 양성은 11개 교육대학이 중심이 되어 목적대학의 성격을 띠고 양성하고 있으나 교원수요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한 편이므로 정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초등교원 양성체제는 기존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목적형으로 하되 현재 5%로 제한하고 있는 교대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대학

입학 정원도 현재 보다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하여 경쟁을 통한 임용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중등교원 수급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양성기관의 난립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범대학 이외의 일반대학 교직과와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양성기관으로 인정받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부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등교원의 법적 정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98년도 문교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중학교가 40.8명, 고등학교가 4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경우 60명 이상을 초과하는 학급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중등교육의 부실화와 교원의 근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임용 예정 인원을 6,195명으로 잡고 있음도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교과 담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교육체제를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등교사로 메우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고 중등교육의 질적 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재정확보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교원 수급을 위한 정책은 한마디로 단기적인 안목에서 해마다 부족 교원 메우기에 급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우선 당면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초등의 경우 교단 안정을 통한 명퇴 교원수를 극소화하고 둘째, 탄력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며 셋째, 초등교원 양성 인원의 증원 등 장·단기적인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등의 경우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일대 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이 필요하다 보겠으며 퇴직 교원의 기간제 임용으로 부족 교원을 해소하려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는 법정 정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교원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최근 교권을 경시하는 학교 풍조에서 극도의 좌절감과 근무의욕을 잃고 교단을 떠나려는 수많은 교원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는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없이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의 교원수급책으로는 근원적인 교원수급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원의 사기 진작과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또한 교원들의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金明漢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在福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金在福 인천교대의 金在福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원수급의 문제와 확보방안인데 주로 초등교원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초·중등교원의 양성과 임용현황이 어떠한가, 두 번째 교원정년단축과 수급정책에 따른 문제상황은 어떠한가, 세 번째, 초등교원의 확보를 위한 장단기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은 어떠한가 하는가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된 자료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하지 못하고 압축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중등교원의 양성과 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은 국립교육대학을 중심으로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목적형이라 함은 교원교육에만 집중하는 교육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성인원의 거의 전원이 임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급연동제의 원칙에 따라 필요인원에 맞춘 양성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비교적 제고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등교원의 양성과 임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은 목적형으로서의 사범대학 이외에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개방형 양성체제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약 2만5,000명 정도의 양성을 하는데 비해서 4,000명 정도밖에 임용이 안되기 때문에 심각한 적체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 현금의 실정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원 정년단축과 수급정책에 따른 문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시적인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은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야기하였습니다. 1999년도에 일시적인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급증으로 1만6,000명 정도의 신규수요가 발생했는데 비해서 당해연도 교육대학 졸업생은 4,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현상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원의 정년단축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럽은 대체로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북미·호주 등은 65세까지 가능하며 계약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인성과 가치교육이라는 전문적 특성에서 타 직종보다는 정년이 늦으며 건강하면 계약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년단축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점진적 단축이 아닌 일시적 단축으로 인해서 교육행정 및 수급에 공백상태를 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명예퇴직자의 급증은 무리한 교육개혁 추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의 주원인은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의 급증은 네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교원들의 사기저하입니다. 교사의 체벌금지, 수요자 중심교육에 대한 부담과중, 촌지척결을 명분으로 한 개혁으로 인한 사회인식의 저하, 그리고 두 번째는 교단 세대교체의 가속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 퇴출을 위한 개혁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불안의 증폭입니다. 연금기금의 고갈과 기여금 부담의 증대, 연금 수혜연령 및 연금지급 기준의 변동에 대한 소문 등이 명예퇴직을 유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는 부족교원의 증원은 교원수급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땀질식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의 충원계획을 보면 전체 1만 6,000명 정도의 충원계획에서 신규로 임용되는 정규적인 임용을 6,000여명으로 본다면 기간제 활용, 중등교사가 초등교사로 오는 인원과 초빙교사 즉 명예퇴자를 활용하는 인원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교원수급정책이 잘못된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6,000여명의 중등교원 자격자를 약 1,000여 시간 교육을 시켜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점상으로 볼 때는 교육대학 전공과정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단기 집중교육은 실험·실습·실기 등에서의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고 내면화된 지적교육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등의 정의적 교육실시를 불충분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임용은 교육대학학생들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은 10월초부터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부터 약 6주간 수업거부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단기보수교육 후 초등교원 임용을 반대한다, 두 번째는 모집하였거나 이미 모집한 자격증 소지자 외에는 추가보수교육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수교육을 받기로 약속한 자들의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전담교사의 과목을 체육·음악·미술·영어로 다시말하면 기능교과로 국한해 달라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기 방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 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초등교원의 사기와 근무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교직에 애착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육권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연금정책, 교육환경 등에서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정확한 수급판단에 의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장단기 수급계획을 수립해

야 되고 교원양성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빈자리 채우기식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교육 고유의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초등교원의 수급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한 단기적인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퇴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교사에 대한 연금불이익이 없음을 확실하게 하는 정책적 약속이 필요하고 고통자퇴출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원로교사 우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퇴직자의 초빙계약제 및 기간제 임용을 어쩔 수 없이 최대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정규교사 중 교과전담교사로 있는 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교과전담교사의 T/O는 1만8,0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정규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은 1만명 정도 됩니다. 교사의 수급이 조정될 때까지 이들 정규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학급담임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므로 수당지급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증치교감에게 학급을 담당하게 하여 교원수요를 감축시키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는 교감을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치교감을 학급담임을 겸하게 하면 약 698개교에서 이런 증치교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여 교원수요를 줄이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학생수는 학급당 초등학교가 35명인데 도시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면 교원수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규모 학교 및 학급 통·폐합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우선 교육대학 학사편입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金明漢 교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교육부 개혁에 의하면 초등학생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대학도 약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춘다면 초등교원수요는 매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교육대학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교직을 이직한 후 타 시·도 교원임용 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벽지나 시골지역의 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에 와서 응시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0월1일 이후 사표수리자는 응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소 막는 제도를 썼습니다. 다마는 교직의 사표수리 후 적어도 2년간은 복직을 불허함으로써 시골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와서 응시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단기집중 보수교육은 이번 1회적으로 끝나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초·중등교육법 21조 및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을 보면 중등교사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초등교사로 올 수 있는데 초등교사는 중등교사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같은 4년인데 이것이 불공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336시간 이상만 중등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초등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에 극히 제한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양성과 임용에서 성비 할당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현장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과 교육은 남녀 성인의 균형적인 지도가 요망되며 학교경영에서도 성 역할에 따른 업무 분담이 요구됩니다.

교육대학에서는 남녀 성비를 할당해서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에서는 성비 할당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성이 최소 40% 이상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녀차별금지법인가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큰 네 번째로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한 서너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원은 목적형 양성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생활규범 및 가치관, 공동체의식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에게도 집중적인 목적교육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국립으로 존속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KDI는 46개 국립대학의 민영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대학이 민영화되면 교원 수급면에서 중등에서처럼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국가의 교육내용 조정 기능이 약화되며 투자효과의 비효율성이 예상되고 등록금 인상으로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워집니다.

큰 세 번째로 교육종합대학교로의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국립 사범대학을 일반대학에서 분리해서 교육대학과 통합하여 교육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이러한 정책은 시행이 가능해 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종합대학교의 장점을 보면 교육과정, 시설 및 행·재정 등의 대학경영을 교원교육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가 초·중등교원 교육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접적인 계획 투자를 하며 교원 수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큰 마지막으로 국가의 대폭적인 행·재정지원이 교원교육에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교원 양성대학의 시설 및 기자재를 저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평가를 하면서 보았고 이렇게 보았을 때 시대에 떨어진 기자재 또는 자료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첨단매체를 활용하는 교육과 실험·실습 교육을 요구함으로 교육기자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는 바로 예산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나머지 인간성과 보수교육을 중시하는 교육논리를 무시하는 교원정책은 제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교육발전에 더욱 진력해 주

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김재복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15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유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金鍾鎬 서울교육대학교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난립된 중등교원정책을 이 기회에 재고해서 교원양성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있는 것에 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명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여타 환경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교사가 없다면 질 높은 교육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교사라고 한다면 인격과 지식이 연마된 교사, 교직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교사,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고 인간애가 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유인체제, 양성과정 그리고 현장에서의 교사의 연수 전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루어진 교원 관련 개혁들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미풍 양속이었던 '선생님 존경 사상'마저 송두리째 뽑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교단은 교사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 교사부족 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실 안은 교육의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학교의 붕괴라는 미증유의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교사는 대부분 10년 전에도 있었던 교사들이며 교육환경이나 내용도 급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붕괴 현상은 98년과 99년에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소위 '수요자중심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전개된 교육개혁의 부작용과 교원의 정년단축 그리고 경력교사 퇴출을 위한 명퇴유

도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미래 또한 참담하다는 것이 교육에 관심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런 교육개혁의 여파로 전국의 초등학교는 심각한 교사부족 사태를 맞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문가 배치, 퇴직교사 다시 불러들이기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모든 것들이 미봉책일뿐 사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둘째, 합리적인 장·단기의 교원 수급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점을 말씀드리면서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65세로 환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교육의 이념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서당식 교육에서는 서당에 글 배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에서는 학교에 글만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덕·체·정·의가 균형된 전 인격을 닦기 위하여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학교에서는 사물에 대한 지식 및 전통문화와 미풍양속 등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젊은 교사에서부터 중·장년 그리고 60대 중반까지 고루 분포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정년 62세 단축 이후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일반 교사는 40대 중반까지만 있고 50대가 없어졌으며 관리직인 교장, 교감 선생님에 가서야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6·25를 경험한 현장교사가 일시에 빠져 나가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정년단축은 우수 교원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교사의 보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습니다. 45세에서 57세 정도의 경우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 취업자의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그간 교직을 지원했던 이유는 교사에 대한 좋은 사회적 인식,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65세까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은 적은

교사보수의 보상책도 될 뿐더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확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사부족이 타 직종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낮아진다고 하는 피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 교사의 유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사들이 지금 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낮다는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적은 보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 각국의 교사정년이 주로 65세입니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미국 65세, 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각각 65세, 브라질 70세 등입니다. 단 우리 이웃인 일본이 60세라고 해서 이 60세가 과거에 강조되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직은 육체노동의 직업이 아니고 주로 정신노동의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65세까지 직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교에도 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과 전담제로 체육교사가 다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인 교사가 학교에서 더 못 가르칠 이유가 없고 더 자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금 IMF를 맞아 경력교사의 자리를 젊은 교사에게 내주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정년단축을 실시하게 된 배경의 하나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는 경력교사 실업, 신규교사 취업,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력교사를 실업자로 만들고 신입교사를 취업시킬 뿐 고용창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노령 실업자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65세 있던 것마저 62세로 줄여놓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수급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명퇴 러시와 99년8월의 62세 정년퇴임으로 초등학교는 많은 교사가 일시에 교단을 떠났으나 이 자리를 보충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교사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교육시켜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발령내는가 하면, 이미 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초빙하여 계약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사가 모자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65세에서 62세에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내보낸 명퇴자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여야 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명퇴를 유도해서 내보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명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 교사수급 불균형의 단기대책입니다.

명퇴 억제를 유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퇴제도가 교사들에게는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혜택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단공동화현상이 초래되어 교육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7세 이상인 자가 내년 2000년8월31일까지 명퇴를 신청하면 65세까지의 명퇴수당을 적용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법 부칙 4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한 2·3년 정도 늦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3년 정도까지도 65세를 적용해서 명퇴수당을 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일선에는 교사부족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전라도지방과 충청도지방 같은 데는 이번에 교사 신규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평균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전남의 경우, 어떤 섬지방 같은 데는 교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사표를 내가지고 8명 있는 학교가 2명밖에 안 남아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일선에는 교사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갑작스런 정년퇴임, 연령단축, 그리고 명퇴급증, 여기에 연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년 정도만 62세 적용을 65세 적용으로 한 3년 정도만 늦추어 주어도 이 문제는 별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사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면 수급문제는 상당한 정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교사정년 65세 환원은 교사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우수교사도 유치할 수 있으며 현재의 교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교육시켜 임시교사로 초등에 배치한 뒤에 교대에 편·입학시켜 방학을 이용해서 2·3년 동안 전문성을 갖추게 한 후, 정교사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것도 현재의 교사수급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 이것은 교원양성체계의 대책에 해당됩니다.

교원수급의 장기대책으로는 교원양성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입니다.

현재 교원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초등학교문제로 밖으로는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면 무계획적으로 양산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해소정책의 일환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중등교사자격증을 무계획적으로 남발하는 교사양성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중등교사 양성은 여러 가운데에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만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에서 일정한 정도의 교직과정을 수강하면 역시 중등교사자격증을 주고 있고 대학원에서 또 중등교사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운데에서 난립되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등교사는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양성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사양성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안입니다.

현재 난립되어 있는 사범 대학을 정리하고 전국적으로 몇개의 국립 또는 공립의 교원종합대학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알아본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교사는 국·공립대학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일관되게 교원종합대학화 형식으로 양성해야 될 필요는,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등학교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합의되고 통솔적인 진리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통일된 국가이념이 교육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원대학이라고 하는 교원양성 전문대학을 두어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립대학에 사범대학을 두어 놓고 보니까 취직이 잘 되면 사범대학을 두고 취직이 안 되면 없애버립니다. 현재도 없앤 데가 있습니다. IMF를 맞으면서 최근 사립대학에서 없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일관된 국가이념을 통일적으로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직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10년간 국민 기본공통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시키도록 7차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시퀀스를 맞추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교원양성체계의 재편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안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초·중학교 교사까지는 국·공립의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에서 양성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鍾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永菽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朴永菽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朴永菽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교원정책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지 저 자신 잘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 정년단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서로 중복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제 소신껏 소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교원정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원정원 관리를 누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정년단축이 99년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9년이라면 98년도부터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인 97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큰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이지요.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이라는 것이, 정원문제가 교육과정 정책과 혹은 다른 정책과 연관성 없이 논의될 수 있는냐의 문제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교원정원이라는 것을 누가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냐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교과를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며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가 올라와서 각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정원의 문제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삭감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2,000명씩의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원 확보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원정원에 대해서는 가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3월1일부터 초등교육 1학년,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는 7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서 볼 때 지금 현재 가수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와 양을 누가 집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올리고 있습니까? 어디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큰 문제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개발원에 있고 앞으로 21세기 지식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주어져 있는 교육정보를 총체적으로 가늠해서 가공처리하는 연구자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연결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급문제에 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진술인께서는 각각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치기준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치기준은, 정원이라고 하는 관리기준은 학교급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만명을 배정받으면 그 배정된 인원수 내에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기간제 교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도 교육청 평가를 금년도에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서 실정을 보니까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별로 융통성 있게 자체 정원배정 기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총정원제를 실시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높습니다.

총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 파악한 수량만큼 정해 주시면 그 정원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이든 학교급별로 필요한 만큼 알아서 배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장되는 건의입니다.

다만 총정원이라는 숫자를 정부에서 정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실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교과별로, 학교급별로 혹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를 조사수요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사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정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2001년에 중학교에 실시하고,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기까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새롭게 양성되어야 할 교사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양성기관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상

황입니다.

전반적인 7차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정책 수요가 총체적으로 진단되어야 됨과 동시에 그 진단된 총량 규모를 가급적 확보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OECD 선진국가로 교육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제시되었지만 OECD국가의 평균 교육인력 종사자,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산업 앞에서, 교육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를 보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숫자를 선진국의 평균수치로 올리고자 하는데 산술적으로 수요를 추정해 보면 거의 한 2만명에 가까운 정원을 배증하지 않으면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경쟁력이라는 대발전지표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다른 논리도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무언보다도 교육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우수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 대방침 하에서는 절대수의 교원수가 필요할 뿐더러, 앞으로의 수업시수의 차이를 고려해 가면서 교사 1인이 적정시수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교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사 1인당 3시간에서부터 32시간까지 엄청난 차이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관리가 왜 그렇게 소홀하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역의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농간의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는 균형있는 수급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전공 연수과정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전공 연수과정을 통해서 통합되어 있는 교과라든가 공통교과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교육과정의 운영요소가 변화되면 이 변화되는 것만큼 교사가 필요한 것은 아주 진리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이 변화요소에 맞추어서 정말 교사가 신명나게 자신이 보람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기준도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永菽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辛相祚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辛相祚 고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辛相祚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신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교원의 정년단축문제를 공청회를 통해서 재론하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파생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원 정년단축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를 하면서 '빨 고치자고 하다가 소 잡는다'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교원을 정년단축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 바람직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원의 질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명예퇴직제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교원 정년단축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IMF사태를 맞아 교직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정책을 단행하였습니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운 정년단축의 논리는 고령교원을 퇴출시킴으로써 어려운 국가재정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신규임용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과 고령교원은 교육 효과 면에서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주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의 특수성이나 전문성과 교원 개인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령이라는 유일한 잣대로 그야말로 숙련된 교원을 일률적으로 퇴출시킨 결과 당초에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원 수급의 차질이라든가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이라든가 교육력의 약화 등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또 최근의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피 교육개혁의 프로그램들과 맞물려서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학교 붕괴나 교실붕괴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그동안 2년간 노력한 결과 IMF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교육계에 있어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파생된 후유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육현장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원 정년단축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영역별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직 우대풍토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이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교원과 법관 등의 정년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65세로 정한 것은 그 업무에 따른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임에도 고령교원은 무조건 무능하다는 이런 발상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부형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단체에서 무차별적으로 선생님들을 공격을 하고 무능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욱이나 교직이 장기근속에 따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력마저 이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앞으로 우수교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IMF이후에 우리 사회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원수급의 차질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도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거에 단행된 정년단축으로 당연퇴직자는 물론 1942년8월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65세 기준 명예퇴수당 적용이라는 이것은 소위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명예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초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교원수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2학기에는 신규교사의 보충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명예퇴교사를 다시 기간제교사로 초빙하거나 중등자격증 소지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는 등 이것은 완전히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편 초·중·고 모두 교원수가 줄어들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정원이 학급당 2.0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1.99, 1.97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정원수급계획을 학교에서 짜내라 하는 것을 보면 학급당 1.95로 낮아졌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2.0에서 1.95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두세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교과별로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원 인사질서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9년9월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당연퇴직과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 관리직 인사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60% 정도의 교장, 교감이 퇴직하는가 하면 일부 부장교사까지 한꺼번에 퇴직한 학교가 많아 교원인사에 혼란을 겪게 되고 지금 초임교장이 52% 신규로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반이 취약해서 학교 책임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50대의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해버려서 교원연령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8월31일까지 출생한 교원이 2000년8월31일 이전에 자진해서 퇴직할 경우에 한해서 65세까지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연금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2000년 2학기에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 초등교사 수급은 걱정 없다 이런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수급계획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집계한 결과 3,586명에 달해서 당초 교육부가 집계한 수급계획 예상수 보다 한 800명이 초등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또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량퇴직에 따른 막대한 국고부담의 증가입니다.

99년8월말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자에게 연금 일시금이든가 명퇴수당이든가 퇴직수당 등의 재정소요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 기채를 해서 매우고 하는 이런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8월에도 재정부담을 우려해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이 지방재정에서 소요재원 부담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국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사정상 또 명퇴신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 명퇴신청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고 또 명퇴를 못하는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에 대한 의욕상실 등으로 교육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고경력 교사를 퇴출시켜서 국가예산을 절감을 하고자 했던 당초의 경제논리는 결국 허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간제교사의 충원에 따른 학교 교육력의 약화입니다.

고령교사가 떠난 자리에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교단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기대와는 달리 교원수급의 차질로 부족교원의 상당 부분을 기간제교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간제교사는 임시로 임용되는 그야말로 임시적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제교사를 임시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가 어떤 정규제도 속에 포함되는 이러한 분들로 생각해서 정원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소위 땀질식 인사다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제교사는 담임 맡길 수 없고 학교의 중요한 업무도 맡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명퇴교원이 기간제교사로 임명된 경우에 이미 연금과 명퇴금을 받고 수당명목으로 사실상 월급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장에 남아 있는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교육부의 수급계획을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초등에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등은 8.5%를 차지합니다. 또 중등은 사립대에서 교직과정에서 양산이 된 사람들로 매우기 때문에 인원은 확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마는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아까 앞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초·중등자격증 소지교사간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급별 교원양성기관간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족되는 초등교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육과정 보수교육 후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교대출신자와 중등자격증 소지자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대출신 교원들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로 생각하고 중등자격 소지교사들도 임시직 같은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그 대책을 몇 가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교원정년단축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개혁조치가 교단을 혼란에 빠트리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제논리가 아닌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직사회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정년단축을 고려하였다면 연령이라는 물리적 잣대보다는 능력이나 업적이라는 잣대로 교단을 정리하는 질적 관리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로 2000년2월8일 대량명퇴 예방조치를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는 해당자의 명퇴를 유도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2년8월31일까지 명퇴를 할 것 같으면 퇴직금을 65세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것은 명퇴를 유도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2학기에도 올해 경험한 바와 같은 학교공황이라는 심각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942년9월 이후 출생교원들은 여기서 또 제외됨으로 해서 또 다른 불만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교단이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를 여기서 폐지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까마는 그것을 개정해서 적어도, 지난번에 5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37년도9월1일부터 42년8월31일까지니까.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다 한 5년 정도 연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가 명퇴를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였다면 이제는 명퇴를 유예할 수 있는 장치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오늘날 교단혼란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정년단축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환원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정년 65세의 환원은 당장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교원정년단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의 적체를 해소하는 교육적 합의가 깔려 있는 정책안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빙자한 세물이성 미봉책이고 빈약한 경제논리를 앞세운 궁여지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당장 교원수급의 차질을 초래했고 교단에 커다란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킴으로써 열악한 교육풍토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인 만큼 교직의 중요한 메리트인 정년문제는 신속히 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장임기제의 폐지입니다.

그 동안 교장임기제는 시행과정상 도입취지와는 동떨어진 아주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것이 새로운 족쇄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원정년단축

이후에도 임기제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1999년9월에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단행된 초·중등 교장, 교감인사에서 40대 교장만해도 30여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의 교장임기제가 계속 실시된다면 8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교단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젊은, 유능한 교장들을 우리가 발령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또 임기제에 걸려서 대거 퇴출되어서 교단의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교장임기제가 이제 새로운 악순환을 초래하는 새로운 부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교장임기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초등학교 교과전담을 위한 기간제 교사 이것 재고되어야 됩니다.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의 원래 취지는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키워 전공별로 교과를 전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과전담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교육대학에서 교원양성제도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증치교사란 이름으로 있었던 것을 이름을 교과전담제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증치교사라는 그런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부담 정도를 줄여주는 이런 제도로 사실은 활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초등학교 교원부족을 겪게되자 그 대안으로 교과전담교사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선발시험을 치르고 여기에 의해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 사람들을 발령을 내고 이랬습니까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초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그러면 정년도 환원을 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교단에서 선생님들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안으로 마지막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원은 일률적인 정년단축 그러한 기재보다는 합리적인 교원평가방안을 모색해서 교원의

질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존심과 긍지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직풍토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차제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교사들은 자정적 차원에서 교직에서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원평가방안을 연구·개발하고 교원의 질 관리를 정부가 책임지는 근원적인 교원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연령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원로교사들이 강제로 교직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辛相祚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正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운영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陳述人 尹正一 저는 우리 학교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황폐화되고 또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간기구인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총에서는 학교바로세우기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국회의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정책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님들 좌석이 공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이 흔들리면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육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붕괴되고 있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고 세계에게 가장 높다고 하는 교육열이 학교 현장에서 싸늘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지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붕괴현상을 극복하

는데는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 붕괴의 실상은 조선일보의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KBS의 “추적60분”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에서 조사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뿐이며 신뢰관계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지속된다고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통제력을 상실하고 교원결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무리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개혁과 IMF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직사회를 파괴하는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정부가 오히려 교육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경제논리에 따라서 교원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시키고, 정치적 타협으로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IMF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히 교원정년단축은 교원경시풍조를 야기시키면서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서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고,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원정년은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65세로 규정된 이후에 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61세로 잠시 하향조정되었다가 1년만에 다시 65세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 아까 여러 진술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70세입니다. 성별, 연령별, 출신지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여러나라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서 교원신분의 안정적 보장과 교원을 우대해야 한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한국교육신문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정부의, 그러니까 과거정부입니다.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을 개혁작업의 방관자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취임전인 2월초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원

정년단축안을 제기했을 때 교원정년단축안이 대통령의 뜻이 아님을 명백하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교원정년단축안에 대해서 교원, 교원양성기관, 교직단체, 학회, 시·도교육위원, 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년단축조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교원신분의 보장과 교원우대정신에 배치된다.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를 불안하게 하며 그 후유증으로 혼란과 절망의 상처를 교육계에 남길 것이다. 정년단축조치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다. 정년단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며 임용당시 65세 정년을 인지하고 교직을 선택한 현재 교사들의 정년을 단축하는 조치는 기대한 권리를 발탈하는 위법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전체 교육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초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하는 방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선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단 나흘동안 입법예고함으로써 정년단축에 대한 공론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교원정년단축의 이유를 기획예산위원회는 고령교원 한 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명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교사 스스로를 포함한 일반여론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사실은 교육개혁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교원정년단축을 주장하고 찬성했던 측에서 정년단축의 필요성이나 이유로 예산절감, 교원임용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학생과 교사와의 세대차 해소, 사회적 여론 적극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리와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정년단축의 필요성은 구체성이 없고 애매모호합니다. 정년단축은 교육발전을 위한 오랜 교녀의 선택이었다고 당시 교육부장관은 정년단축의 이유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

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은 오늘의 우리 교육에 대해 새로운 교육틀로의 전환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교육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교실개혁으로 완성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단개혁은 일부교원의 단순교체가 아니라 모든 교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정년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원충원으로 새로운 교직풍토 조성에 주력하고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충원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년단축은 교단의 개혁기반을 조성해서 현장교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어냄으로써 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고 따라서 교원충원은 단순한 인력의 수적 확보차원을 넘어서서 개혁지향적인 신지도력 창출에 역점을 두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정년단축은 밀어붙이기식, 주먹구구식 교육개혁이 실패한 대표적인 예이며 경제논리에 따라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교원정년단축을 단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제시했던 정책목표들이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교원의식과 관행이 변화되고, 교직사회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질높은 교육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노령교사 한 명을 퇴출시키고 젊은 유능한 교사를 2.5명 신규임용 하였으며 교육예산을 크게 절감했는가? 학생과 교사의 세대차이가 해소되어서 교사가 학생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이 교사를 잘 따르고 존중하는가? 교원충원은 단순한 인력의 수적 확보차원을 넘어서서 개혁지향적인 신지도력을 창출하고 있는가? 정년하향 조정에 따른 교원수요 충족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교원수급상의 차질이 없는가?

단순한 인력 수적 확보차원을 넘어서서 개혁지향적인 신지도력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과 질문에 대해서 즉 당초에 교원정년단축에서 기대했던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입니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단축조치는 교원경시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서 초등교원



수급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는 등 편법으로 교원결원을 충원하였으나 부족교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가, 교육청 자체가 편법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몰았던 교사를, 능력이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를 재계약해서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지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초·중등교원 1만4,000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수급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초등교사 수요가 1만6,274명인데 그중에 60%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교사로, 무능력하다고 내쫓은 노인교사로 충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원 수급차질의 직접적인 원인은 갑자기 교원정년을 3년씩이나 단축시킴으로써 연간 교대에서 양성·배출하는 신규교원보다 많은 수의 교원이 정년퇴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퇴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명퇴를 부추기는 그러한 정책 두 가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년 8월까지 명퇴하면 이득이고 그 후면 손해고, 교육공무원연급법을 개정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명퇴를 부추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원수급대책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은 중등교원 자격소지자의 초등교원 임용,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 기간제교사 임용을 반대하며 9월말부터 수차에 걸쳐서 수업거부를 해왔습니다.

명퇴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예년의 5배인 1조원에 달하고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는 내년도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예산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으로 발생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시·도교육청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위한 막대한 액수의 기채를 얻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채를 누적시켜서 파산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단축은 교사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케 하며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키고 교

사집단의 이질성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저하가 우려됨은 물론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수학생들이 교원양성기관을 회피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은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고 정책수단이나 전략, 방법이 잘못되고 실패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설정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교육을 붕괴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므로 해서 65세로의 환원은 필연적이라 보겠습니다.

잘못된 조치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를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 땀질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붕괴의 현상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총체적 교육위기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교육관료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부인들이 옷을 언제 사고 언제 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이 전체가 다 망가지고 국가미래가 암담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청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작은 정치 하지 말고 큰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지닌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단견적인 시각으로 혹은 장관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개혁안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에 대하여는 장관직이나 국·과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서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제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제부처장관을 맡고 법조인이 법무부를, 군 생활 경험이 있고 국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 국방부를 책임지듯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몇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사는 몇 사람의 환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교육부장관은 40만 교직자, 천만 학생 그리

고 학부모 이들을 괴롭히고 국가백년대계를 망가뜨립니다. 한번 망가진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년 이상 되어야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적인 활동이고 국가백년대계이므로 정치가나 교육문의한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부장관직은 지역안배나, 성별안배나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표창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해서 그때부터 교육을 배우려고 하면 한국교육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현 정부는 강도높게 IMF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켰다는 데에는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교육분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후세에 역사가들이 아마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朴正熙 대통령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 金泳三 대통령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은 뭐라고 기록할 것이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대로 교육붕괴현상을 방치한다면 필연코 교육을 망가뜨린 대통령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교육분야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투자우선순위를 교육에 두고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은 학교 교육 붕괴현상을 치유함과 동시에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여부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통령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載善 한국초등교육협의회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崔載善 제가 속한 한국초등교육협의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에는 약 5,600여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선 교원정년단축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교원정년은 65세로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교원정년단축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초등교원수급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과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모두와 국가장래를 좌우할 교육이 희망과 기대보다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면서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입국의 시대적 사명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일련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실붕괴나 교육공황 등의 문제제기는 결코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초등교육의 현상이 심각한 교사부족사태 속에서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육위기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이 교원수급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단축과 그 과정에서 야기된 교원경시풍조 때문에 비롯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장래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너지는 교실,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하루속히 안정시켜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의 논리와 정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무시 당한 채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데 대해서 심한 배신감과 함께 울분에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기획예산처가 교원정년단축안을 처음 제기하면서 내세운 것이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경제논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입국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젊음을 바쳐온 노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았다는 데서 국민의 정부의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경제논리가 얼마나 허구였는가에 있습니다. 2.59명의 젊은 교사를 더 써서 선생님을 늘리고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수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정년을 단축시켰다고 했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년단축 후의 학교 현장은 선생님의 수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모자라는 선생님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각한 교사 부족과 함께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8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없다는 제목으로 정부가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머리 속에 그런 수급계획이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금년에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6,200명에게 단기교육을 시켜서 기간제 교사로 땀질식 충원을 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와같이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결과 교육현장이 더욱 어지럽게 얽히고 특히 초동학생들에게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 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기고 또 명퇴 교사들을 다시 임용했지만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교단을 떠날 결심을 하고 퇴직금까지 다 받은 선생님들이 몇 달 동안 임시로 기간제 교사가 되었으니까 잘 가르쳐 주겠다는 의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2,0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도 각 시·도에서 당장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규교사임용고사를 볼 때마다 모집정원이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사 부족사태는 교사의 질 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

나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아 교단을 떠났던 부적격 교사들조차 이번 교사 부족사태 속에서 치러진 임용고사에서 버젓이 합격한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 역시 교사의 질 관리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정년단축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교육부의 수급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로 채웠으니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답변만 하니 참 딱한 노릇입니다.

앞에서 辛相祚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다마는 기간제 교사는 말이 교사지 사실은 병이나 산후 등으로 잠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임시교사로 원래는 담임이나 성적처리 등 중요한 업무는 담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로 부족한 교사를 채우고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년단축을 위한 경제논리는 퇴직금과 명퇴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생각하지도 않은 단순논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육부와 각 시·도의 재정부담은 결국 학교 교육비마저 감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으니까 당초의 경제논리가 얼마나 무모하고 허구에 찬 주장이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원 정년단축을 새로운 천 년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논리도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이 젊어졌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조차도 수긍하기 어려운 억지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학과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우대책을 써서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험많은 고령교사를 퇴출시키는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고령교사를 기피한다든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을 맞춘다는 것도 선생님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당시 교육부를 둘러싸고 있던 조직의 실체가 의심스러운 정도의 소수의 학부모 단체가 마치 전국의 학부모를 대변하는 것처럼 교직을 매도하고 선생님들 사회를 혼들어

놓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사이를 매끄럽지 못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원 정년단축의 찬반논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원 정년 65세는 교원 존중의 상징이었으며 중요한 교원 유인책의 하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원 정년 65세를 하루 아침에 3년씩이나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교원 사회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추락하는 교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을 잃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잃은 채 심한 허탈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시게 했고 남아있는 선생님들조차 떠나는 선생님들의 뒷모습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년단축과정에서 나타난 교권의 실추와 교원 사회의 침체된 사기는 물론 정년단축 그 자체의 부당성 보다도 정년단축 이후에 나타난 학교현장의 모습 특히 심각한 교원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원 정년 65세는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낱낱히 적시하시고 65세 교원 정년을 당론으로 재확인하신 한나라당 위원님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주장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그 주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수급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으로 5,135명 명예퇴직으로 1만755명 이렇게 모두 1만6,000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지난 봄 명퇴희망교사가 늘어나면서 교육 공황을 우려했을 때도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기간제 교사 6,780명으로 부족교원을 매우고도 교사 부족현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규모 명예퇴직과 명퇴 교사의 재임용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978억원을 기채하고 그 결과 환경개

선을 물론 시설개선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명퇴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일은 부족한 교사 수급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명퇴를 하면 65세 정년에 따른 퇴직금과 명퇴수당, 연금을 다 받은 뒤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계속 설 수 있다는 이상한 현상을 초래해서 선생님들의 명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휴나 병가 등 일정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교사로 임시교사에게는 한 학기나 한 학년을 맡기고 학적부 등 공부를 작성하게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학부모들조차 교단이 싫다고 떠난 선생님들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임용고시때마다 미달사태를 초래하여 임용고시를 앞둔 교대 4학년생들이 공부하기 보다는 합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필 쥘 힘만 있으면 합격”이라는 자조섞인 농담 속에 시험도 보기 전에 합격의 축배를 들고 있다는 말은 초등교사의 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초등교육의 적성에 맞는 사람이고 어느 한 교과만 전공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교육 몇 시간 시켰다고 해서 초등교육에 맞는 적성과 소양을 갖추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임용한 후에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을 모르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수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65세 명퇴지급기준의 연장, 연금제도나 명예퇴임제도의 변화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정책천명이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42년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

하는 65세 명예퇴직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명예제도의 연장을 약속해서 현재 명예퇴직자들을 돌아서게 한다면 교원수급문제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교원정책을 수립해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되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교사가 긍지를 갖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은 물론 전국민이 교육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崔載善 한국초등교육협의회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薛 勳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말씀하세요.

○薛 勳委員 오늘 중요한 교원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교총주최로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습니다. 1만4,000명의 교원이 참석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있는 본위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위원이 오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교총대회는 사실은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대회도 축하하고 또 대회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교육위원 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오늘 이 공청회는 연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연기가 안 되고 강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연기하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되었는지,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지금에서야 참석하게 된 경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委員長 咸鍾漢 그 연기신청을 저는 듣지 못했고 朴範珍 위원과 朴承國 위원, 金日柱 위원의 간사간 협의의 통해서 23일날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교육바로세우기 실천대회도 참석하는 것은 간사만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양당의 대통령과 총재가 참석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교원정책에 대한 것을 이번 주가 아니면 할 새가 없을 것 같아서 하자고 약속이 미리 되었고 또 그 약속한 이후에 저한테 연기신청을 한 일

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셨더라도 우리 진술인들께서 성실하게 진술을 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개진하셔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서 옆질러진 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교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좋은 진술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정책이 잘 되었고 잘못 되었고를 떠나서 어차피 옆질러진 물입니다. 그러나 교육붕괴현상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붕괴되지 않도록 다시 이 교육을 바로세우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심한 소리는 서로 절제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입장도 건축과를 나온 건축기사가 과학실험실에서 실험을 지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등교사에게 간단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것 옳지 않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워낙 예상을 뛰어넘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떠나는 교육현장을 그래도 우선은 선생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꼭 계시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서계신 자리만 있어도 저희들은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습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소중한 선생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을 믿지 못한데서 이런 일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교원양성이라든가, 임용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또 내년에 닥쳐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교육붕괴를 막고 교원이 교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회가 12월3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니면 이 공청회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이해

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교총대회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작년에도 그랬고 교총대회가 있다면 이런 공청회는 연기해 가지고 교총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이 공청회도 전 위원이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함이 마땅한데 교총대회 날짜가 예전에 잡혀있었던 것임에도 왜 같은 날짜에 공청회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불참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에는 날짜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12월3일까지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 사이에 왜 날짜가 없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교원정년 대한 법안도 내놓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미리 우리가 한번 거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교총대회는 대회도 대회지만 그 대회가 오늘 교총회장을 뽑는 그 앞의 식전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식전 행사에는 양당 총재님이 가서서 당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 위원들은 차분하게 여기에서 교원정책에 대한 바로 그 분들이 오늘 논의하시는 그런 문제를 이곳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상식적으로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양당 총재가 자기 당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교육위원이 빠지고 교육위원장도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교총대회도 중요합니다.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축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할 기회를 갖고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 하는데 왜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잡느냐는 말이에요.

○**委員長 咸鍾漢**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닙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薛 勳委員** 일부러가 아니면 교총대회가 예전에 잡혔는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할 수 있습니까?

○**金貞淑委員** 교총대회는 우리가 교총 회원입니까? 교총 회원들이 많이 가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양당의 대표가 가서 축하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중간쯤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이 朴承國 위원 한 분만 대표로 갔어요. 그러니까 귀 당도 대표로 한 두 분 가셨다가 오면 되는 것이지요.

○**薛 勳委員**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金貞淑 위원도 가고 싶어 했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갔어야 할 자리에요. 그런데 날짜를 왜 그렇게 잡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위원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 일정은 이미 잡혔으니까요.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진행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자,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을 원하는 진술인을 지목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盧武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오늘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체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얼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질의 형식을 빌어서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술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보면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과 그 사실에 토대한 견해, 대책을 밝혀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정서를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이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닌가 말하자면 편파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교육을 둘러싸고 그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 단체들도 역시 교육의 수요자로서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에 참여하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집단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진술해 주신 분들의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왔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니까 나오셨을 것이라고, 전문가를 전부 지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전문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저도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의 일원으로 몸담고 있었는데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꼭 사회정의에 투철

하고 어떤 법적 사고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학과, 화학과도 나오고 무슨 상대 나온 분들 이런 분들 법관해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구분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전문성은 대단히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되지만 꼭 전문가들에게만 그 영역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영역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꼭 전문가만 나와야 된다 이런 시각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전문가되시는 분들도 자기의 전문지식에 의해서 시야가 좀 편협해 지거나 차단되지 않을까 또는 직접 전문적 영역에 종사함으로써 그 전문적 집단의 이해관계에 토대한 어떤 편견이 혹시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진술하신 분들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체로 진술하신 분들의 말씀 중에는 오늘날 학교가 붕괴되고 있고 교권이 실추되어서 정말 한심스러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그런데 그 원인이 주로 정년단축과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의 교육부의 잘 못 된 정책과 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전제를 대충 깔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학교의 붕괴와 교권실추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진짜 이 정년단축에 모든 책임을 다 미루어 버릴 수 있을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미 나가셨던 분들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야 없겠지만 그 분들이 다 교단으로 돌아 오면 우리 학교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분 아무라도 나중에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년단축의 과정에 관해서 경제논리를 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정년단축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동기로서 정년단축이 이 정권에 의해서 단행된 것인가, 꼭 그렇게 믿고 계신지,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체의 이유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하면 학교의 교육상황이 심각했고 교육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문제된 것이고 그 개혁과정에서 정년단축이라는 이 하나의 수단이 개입되지 않고는 학교의 새로운 교육개혁 과정이 많은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속에서 설사 기획예산처에서 경제논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해야될 교육부마저 그냥 은근히 동조해 버렸거나 아니면 내밀히 기획예산처와 내통해 가면서 정년단축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만일에 교육부가 이 정년단축을 추진했다고 하면 그것은 경제논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정년단축을 통해서 저항을 좀 막아야 될, 억압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교육부가 냉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그것이 울랐던 글렀던 간에 정년단축의 원인이 경제논리만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신지요.

또 한 가지 정년단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도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해야지요, 또 학교를 관리하셔야 하고 또 젊은 선생님들 지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이론적으로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왜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일부 학부모들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정년단축을 거들고 나왔을까, 그 다음에 학부모가 아닌 많은 일반 국민들이, 정년단축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반대를 하고 각계각처에 많은 호소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국민들이 냉담했던가,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조차 왜 그렇게 했던가 하는 부분이 단순한 경제논리만일까 이런 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가 꼭 대답을 달라기 보다는 어떤 사물을 바라 볼 때 그 사물을 좀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진단해 나갈 때 좀 본질의 문제에 접근해 가야 된다, 오늘날 학교붕괴의 원인을 정년단축에만 있다고 해서 정년을 복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 혹시나 나중에 또 다시 증명되지 않을까요?

교육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들이 다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정부정책으로 나붙은 지는 참 오래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때도 뭐가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때도 교육개혁 뭐가 있었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나간 책들을 이렇게 본 것 중에 '교육개혁백서' 또는 '교육개혁지침'이든가 하

는 두 권의 큰 책……

그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9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과 실험을 거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명현 장관께서 물러나시면서 묶어 준 두 권의 책, 그 책에 의해서 열린교육 제도도 도입되고 학교개혁, 교실개혁이 도입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년문제도 이미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년단축의 칼을 휘둘러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쪽 준비되고 준비되어 온 그 내용들을 이 정부가 실천하면서 좀 과감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강력한 저항이 있고 그 저항에 대한 李海瓚 장관의 특유의 과단성 있는 반격이 아니었던가…… 차마 한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에는 그 장관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년단축으로 학교가 붕괴되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모두 저하되고 이런 전제에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집약시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내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 솔직히 고백처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년단축을 할 때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정년회복을 얘기하는데 다시 회복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기에 어느 선생님들부터 적용되어 그 회복된 정년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정년단축 그 자체를, 설사 정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실패로만 규정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단축을 일시적으로 하고 일시적인 혼란을 거치는 가운데 학교의 교단이 또 다른 문화와 풍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년이 회복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주견을 갖고 있지 않고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정년단축이라는 이와 같은 정책수단을 교육부가 방관했거나 또는 은근히 동조한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대책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 정년단축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개혁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교사협의회운동, 전교조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불순한 사상적 조류를 가지고 한 운동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소위 참교육을 내세운 귀담아 들어야 될 많은 얘기들, 교육정책당국이나 학교의 선배선생님들도 귀담아 듣고 교육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될 많은 얘기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우리 교육계가, 특히 교육계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내부에 있어서의 개혁의 몸부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뒤 그분들의 복직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들의 손으로 쫓아냈던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오는 데 대한 저항감 같은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과거의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기보다는 다시 자기의 과거의 문제를 들먹이는 기억으로부터의 부담감, 이런 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앞서서 개혁을 주도해 나갔던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의 큰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겪어야 되는 진통이고 그 변화라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 이 시기에 서 있던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도 상처를 입고 갈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의 어느 학교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니까 새로 지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김에 현대적 교실로 새로 지으라고 예산이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아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 문제를 의논해 가는데 계속해서 방관 내지는 반대의 자세를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귀찮다는 반응을 보여 나가는 가운데, 어느 영역이나 다 그렇고 우리 정치영역도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적 정서 위에 있지만 오늘 정치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듯이 오늘 선생님들의 명예가 땅바닥에서 밟히고 있는 데는 스스로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



제를 교육부의 정책, 정년, 이런 문제로 환원시키는 화법은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5분 정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 소속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각계 교원정책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시라고 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진술을 듣고 참으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될 때 끝까지 막지 못하고 저희들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마지막 표결까지 가서 결국은 62세로 단축이 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1년 동안 가슴아픈 상황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교원수급계획에 차질은 없겠으나, 또 초·중등교육의 질은 향상이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기대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마는 역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에 이 교원 정년단축을 반대했을 때의 심정과 조금도……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죄스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각계에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항상 우리 당의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교원정책에 대해서 국정감사시나 상임위원회 때 많은 의견을 냈지만 이것이 과연 정답인가, 다른 교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마치 정답을 얻은 것 같아서 용기가 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교권확립을 위해서 애써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은 집단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교원집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시련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 손에 달려 있고 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정부 출범 이후에 교단붕괴, 교실붕괴로 통칭되는 소위 교육의 황폐화는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교사들을 소위 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주 대상으로 여

기면서 참스승인증제, 촌지거부 교사 포상제, 학교담임 선택제 등 교사들의 위신과 자존심과 사기를 깎아버리고 상실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남발했고 급기야는 교원정년을 3년 잘라버렸습니다. 이렇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무능하고 부패된 집단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데 교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2002년 대학입시부터는 이제 무시험이다, 공부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잘 해도 들어간다……

지금 여러 가지 무시험 대학입학제를 발표하면서 수행평가의 문제점, 학교성적 부풀리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교실이 더 한층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사기를 올려 줄 것인가가 이 교육을 회복시키는 데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원들은 교원정년 3년 잘랐다고 해서 사기가 저하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그 3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 그리고 수모, 또 상실감, 교단을 떠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교육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나마도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많은 전문가들께서 내놓으셨지만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의 뜻입니다.

첫째, 교원경시정책을 이제 우대정책으로 바꾸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盧武鉉 위원께서 그러면 그만둔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다 환원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손해본 것 다 보상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권익,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처우를 좀 향상시켜 드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교권확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학생

들이 지금 교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판입니다. 또 교사가 학생을 나무라거나 사랑의 매를 한 대 때릴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교실 분위기를 잡습니까? 교권, 교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는 정책을 강화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나 잡무를 경감시키는, 기타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연수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포함한…… 또 중기계획으로서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한다든지,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한다든가, 교원의 연금제도 우대, 또 나이는 드셨지만 유능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위원제 같은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해서 이제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정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까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원양성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까 어떤 교수님이 한 2010년까지 제안하셨는데 우리가 교원자질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교원양성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4년으로 하되 중등은 6년으로 가야 전문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국립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 국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국립으로 스칼라 십을 많이 주고, 나오면 교원대우를 그만큼 잘 하고, 그 대신에 복수전공제로 해서 두 가지 교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교수님의 의견에 저는 동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고 해도 명퇴를 좀 유보해 줄 수 있도록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연장해 주는……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신고를 하면 준다는 것을 1·2년 연장한다든가 이런 단기적인 응급처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盧武鉉 위원께서 ‘그 당시에 교육 정년단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라, 교원들도 반성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교육개혁의 대상을 교원들로 잡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판단하거나 진단할 때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진단을 합니까?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많이 있습니까? 이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원정책은 교사들이 주체가 되고 교사들의 의견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분들을 선발해 내서 좋은 교육풍토를 조성했어야지, 일률적으로 무 자르듯이 3년을 딱 잘라 가지고 교원 정년단축을 감행했다는 데에 현재의 교원정책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아까 어떤 분은 청문회 말씀도 하시던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실명제를 주장합니다. 교육정책실패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낸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李海瓚 장관이 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과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할 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다, 수급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많은 답변을 했는데 그 자료를 대주는 소위 말해서 관료들이 교육부에 4·5명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출세했습니다. 다 부교육감으로 내려가고 승진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사람 이름까지 다 들어서 들먹일 거예요. 다 승진했어요. 책임을 묻기는커녕 다 출세한다는 말이에요.

IMF 환란 원인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듯이, IMF 같은 것은 3년, 5년, 10년 안에 회복이 되지만 아까 어느 선생님은 30년 가도 회복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초등교육을 실패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려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육정책이 몇 사람들의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金在福 교수님께서 27페이지에 교직을 이직한 직후에 타 시·도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직된…… 현재 교원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의 성비할당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교직이 인기있는 직종이면 이렇게 남성들이 안 몰려오겠습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그 동안에 초등에 우수한 여학생들만 있었던 것이지요. 남성을 35% 넣으려면 여기에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남학생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우리가 입학에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가면 알아서 다 뽑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교육종합대학교로의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크게 찬성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을 때 교육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인천교대의 金在福 교수님께서 명예퇴직자의 초빙계약제 및 기간제 임용을 최대화해서 지금 현재의 교원부족을 메운다는 안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5세로 빨리 환원해서 전문가들이 초등교육을 맡아야지, 이분들보고 언제는 나가라고 하고, 이제 무슨 기분이 나서 학생을 지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편입하는 것을 金鍾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단기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절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동안 방학을 이용해서 몇 시간 해서 정교사 자격을 준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내용은 중등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許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년단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정년을 60세로 하였다가 2년만에 다시 65세로 올렸습니다. 그때 나도 관련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적에 그러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60세로 하려다가 결국 62세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개혁의 문제도 일부 참고하고 역시 교원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서 절충적으로 63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거에 60세로 했다가 다시 65세로 될 때 이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65세로 반복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래서 나는 65세를 완전회복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63세로 한 살만이라도 더 올린다면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만 둔 선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공화당 때도 나간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복직은 안시켰습니다. 그때도 나간 사람은 나가고 현재 오늘 법이 다시 63세로 통과되면 그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지 소급시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도 동료들과 상의해 보고 위의 사람하고 상의해서 만일에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자면 63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혼자 생각하다가 여러분께서 오늘 많이들 말씀하기에 조금 수정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 받을 때도 주고 또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받아 주고 또 오늘 현실의 수급문제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3세가 어떤지 혹시 이 후에 답변할 적에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있는 학교에 학내행사가 있어서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만나는 교장선생님이시고, 교장선생님치고는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요.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이나 그랬더니 이제 수업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기네 학교가 52학급인데 우리 계양구는 워낙 과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52명이고 교장, 교감 두 분해서 세 분인데 여선생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일도 많이 생기고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평상시에 늘 학교를 많이 다니고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대강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보아야 되고 본위원 자신은 국감을 통해서나 상임위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점을 대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적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또 주장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물론 아까 존경하는 盧武鉉 위원 주장대로 정년문제가 소위 교실붕괴의 전적인 책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이 시기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정년의 65세 전환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유턴 말씀을 하셨는데 快刀亂麻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쓴 말이 되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어지럽게 뒤엎힌 사물이나 말쟁거리를 단번에 시원스럽게 처리함' 이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65세를 3년 줄여서 62세로 정년을 단축하려고 했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상했던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효과는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예상했던 부작용의 몇십배 되는, 아마 지금 그 분들도 마음으로 깜짝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히려 의지를 모아서 논리적으로나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이것을 어떻게 환원시키는데 더 힘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장관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대개 소위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미 나간, 불이익을 당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보다 더 이것을 환원시키는 용기를 가지고 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

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 있지요. 지금 교원양성의 문제나 또 수급의 문제를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교사나 학급인원수를 늘린다 이런 것이 다 지엽적인 일이고 본질과 상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환원함으로써 해서 우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년이 62세로 된 것이 아니라 45세쯤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5세 이상쯤 되면 명퇴하고 나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거기 그 현장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교육부 당국자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하게 강조하는 것은 65세의 환원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무슨 개혁의 후퇴다 혹은 현 정부가 기득층의 반발에 졌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양보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는 국방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또 그 당시에는 6·25를 겪은 국민으로서 또 호전적인 북한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는 경제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흥을 하는 때에 우리나라도 수출드라이브정책 등을 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경제와 국방조차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결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이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는 원천, 창의력의 원천이고 또 지식산업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런 국가의 모든 경제 혹은 국방 혹은 국가의 모든 경쟁력의 기본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체면이나 일관성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한번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을 정책 당국이나 정권이나 정부에서 체면이나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요 문제만이 지금 현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데서 문제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다 그것이 지엽적이고 오히려 본질적

인 문제를 흐릴 것 같아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저  
도 말씀을 드리면서 대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  
고 질의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  
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지혜를 저희들한  
테 자꾸 전달을 해주셔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또 같이 의지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  
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  
습니다. 또 일곱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정책에  
관해서 특히 교원수급정책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곱 분이 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비슷  
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술하신 그  
내용이 전체 교육계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좀 여지  
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쨌든 현상에 대한 교육계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  
서 다들 인정하시지요.

지금 교원정년을 62세로 그야말로 아까 어떤 진  
술인께서 말씀하듯이 쿠데타적으로 한꺼번에 이렇  
게 낮추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기획예산처나 교  
육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이 정도 나가면  
또 이 정도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  
히 숫자적으로 또 이 정도 나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새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할 때 경제적으로  
더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계산해  
보았고 그런데 이것이 빚나간 것이지요. 빚나가서  
결국은 교원단체가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일파만파  
로 교육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더욱더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  
해서 물론 이것을 입안한 정책의 당사자도 정치적  
으로 중요한 과오를 범했다고 보지만 이것을 끝까  
지 막지 못한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지요. 저희들도  
다 크게는 여야간에 이 현상에 대한 책임을 크게  
면할 길이 없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그렇게 되었는데 처방을 어떻게 하  
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하는 것  
이 처방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왕 일은  
벌어졌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된다는 주장  
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년의 문제는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지금 간과하고 있

는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65세에 그만 두시면 우  
리 나이로 66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손자나 보고 다른 무슨 일거리를 찾지 않아도 되  
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개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65세까지 교단에 성실하게 탄 생각을 안 하시  
고 근무하시는데 62세에 그만둔다 이렇게 되면  
'아, 62세에 그만두면 또 일할 거리가 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은 60부터  
라고 자꾸 그러는데 62세에 그만두었으니까 그만  
두고 난 다음에 무언가 일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그만둘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60세, 59세, 57세 이렇게 되면 벌써 '아,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만 두어야 되는데 그만두고 나면 뭐  
하지' 이 생각 때문에 학교교육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  
다. 이것이 저는 또 상당히 큰, 남아있는 교사들에  
게도 교육결손을 가져오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65세에 일정한 정도의, 가르치는 전문직  
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는  
리나 다른 논리에 의해서 재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도 교원의 정년은, 적어도 교사의  
정년은 65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  
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초등학교의 학부  
형들이면 대개 3·40대 됩니다. 대개 초등학교 1학  
년 2학년, 아주 늦게 낳은 학부형들도 50대 초반,  
뭐 늦둥이를 낳았다 해도 그러니까 대개 3·40대에  
자식을 둔, 요즈음에 자녀들이 대개 1명 내지 2명  
아닙니까?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처럼 6명도 낳고,  
7명도 낳고 이런 가정들이 거의 없으니까 1명 내  
지 2명입니다. 그리고 바깥의 일반적인 흐름은 세  
상의 변화가 매우, 아주 바뀐단 말입니다. 학교 밖  
의 바뀌는 이 정서를…… 학교 안에만 가면 정체  
된 느낌을 갖습니다. 학교 안이 학교 밖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을 못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콜라텍을  
간다든지 HOT공연에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 밖의 변화의 흐  
름을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내적인 변  
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제도적 장치를  
하든지 어떤 것을 연구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학부형들이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  
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64세다. 집에 가  
서 이야기하면 우선 가르치는 내용은 둘째 문제로

치고 인성교육이다, 교육의 전문은 둘째 문제치고 젊은 학부형들이 '그렇게 할배가 되어서 뭐 가르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부적격 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적격 교사를 스스로 교단을 물러나게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단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부적격 교사의 자연적인 용퇴라 그럴까 물러나게 하는 방안, 이것이 어느 정도 학교…… 그것이 뭐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든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젊은 학부형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다소 우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주로 교원수급문제의 공청회니까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는 저희 당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고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역작용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이하고 무슨 교육개혁하고도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반개혁적인 것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나이 많은 선생님의 교육의 경험이 더욱더 개혁을 빨리 받아들여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이하고 교육개혁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신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러면 거기에서 따르는 젊은 학부형들의 우려라든지 또 밖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변화의 흐름을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 이것도 교육계 스스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정년의 환원문제는 큰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연장문제는, 환원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없고辛교장 선생님께서 현직에 계시고, 崔載善 선생님께서 초등교육협의회를 맡고 계시니까, 또 다른 분들은 대학에 주로 계시고 그러시니까 辛교장선생님하고, 崔載善 선생님 두 분께서 실제 부적격 교사는…… 꼭 나이 많다고 부적격 교사가 아니거든요. 30대, 40대 교사도 선생은 했지만 형편없는 부적격 교사가 많습니다. 이 분들을 거르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학교 안에서 필요한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를 하시는 尹正一 선생님하고 세 분이 다음에 차례가 되면 간단하게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일곱 분 선생님들께서 오래 교육계에 모두 종사하시고 전문가들이시고 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낸 것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꼭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교육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군사혁명을 통하고 이러면서 바로 전통이 설만하면 무너뜨려 버리고 또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학교도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교육계도 질서가 무너지고 이번에 교원 정년단축문제나 교육개혁이 입안된 것도 이런 것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때는 정치인 정년을 70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귀한 경륜과 교훈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경직된 문제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몇 년전입니다. 어떤 분이 정치인 정년을 70세로 하자고 그러는 무렵인데 서울의 젊은이들 모임인데 저보고 주제강연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세대교체에 대한 주제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가 재미있기 때문에 강의하자 그래서 제가 했는데 간추려 말씀드리면 생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노후냐, 노숙이나? 생 것이란 익지 않은 것입니다. 80, 90에도 익지 않은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지적하지 않겠는데 역대정권에 내내 비위 맞추어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있어요. 70대, 80대에 살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는 생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나이 많다고 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3·40대에도 익은 사람이 있다 그것입니다. 철학사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구라고 내가 딱 지적하지 않지

만 옥고를 치르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위해서 싸운 우리 동지들도, 우리 이 교육위원회 가운데도 그런 동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새사람 아십니까? 생명 내걸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새사람이다. 철학사상 가진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생사람은 때내 버리고 새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둘째, 노후나 노숙이나? 그냥 늙은 사람, 築城礪石입니다. 그냥 비위 맞추고 사는 사람들. 성 쌓고 많은 돌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노숙한 사람들, 경륜과 경험을 쌓은 노숙한 사람들. 그래서 생사람하고 노후는 때내 버리고 새사람들하고 철학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경륜과 경험을 쌓은 노숙한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룬 사회를 건설하자.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한 150명 모였는데 열 명, 이십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저희도 비슷한 생각은 했지만 똑부러지게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교육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경제논리로 교육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개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혁이란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李在五 위원도 약간 언급합디다마는 교육계에 문제가 있는 무능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30대에도 무능한 교사는 퇴출할 수 있고 40대에도 퇴출할 수 있고 50대에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교육개혁의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령으로 잘라서 육곳간에서 고기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래 저는 65세를 주장하다가 우리 자민련 당론은 63세로, 굳이 한다고 그러면 두 살은 내리자.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61세, 62세 올라오는데 그만하면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볼 보듯이 교원정년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5·16혁명 이후에 61세로 했다가 바로 65세로 교원정년을 다시 올렸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젊을 때의 일입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아마 다 교육계의 전문가들이시고 오랜 경륜을 가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단성사에서 상영했던 영화 생각이 납니다. ‘브룩필드의 종’이라는 영화, ‘굿바이 미스터 칩스’라고 책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영국 영화 아십니까? 주인공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처음 교단에 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도 연세 많아 가지고 제자의 아들을 또 가르치고, 또 제자의 손자를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하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40년 전 흑백영화시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저는 초등학교는 글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인성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뚜렷한 교육철학이 정립되지 못했다. 둘째,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골격을 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사범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국가고시는 중요시 생각하고 교육은 나는 일반 국가고시 이상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정부 사범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만큼 컸던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기초를 이루고 뿌리를 이루어서 일본교육이 오늘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는데도 그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육철학의 둘째는 인적 구성의 문제점 그러니까 정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교육은 공립학교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 점에 찬동입니다.

아직 교육재정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재정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가는 교육철학이 뚜렷하고 인적 구성이 잘되고 교육재정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철학이 부실하고 인적 구성이 부실한데 뒷받침하니 결과적으로 그 돈이 헛돈이 되고 말아요. 건물이 하나 지어집니까? 교육기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육이 적당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미국의 교육의 지표를 보니

까 5대 교육지표가 있더라구요. 아동발달단계에서의 인성교육, 둘째 역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역사철학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동발달단계의 인성교육이란 연령에 맞추어서 인성교육해 들어간다 하는 얘기겠지요. 둘째는 역사철학을 통한 인성교육 셋째, 법의식 존중의 교육, 사회질서의 문제겠지요. 넷째, 정의공동체교육 다섯째, 자유사랑의 교육 이 다섯 가지 골격으로서 미합중국 교육이 이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 인종이라는 인종은 다 갖다놓고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끓여버리는데 저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적당히 교육을 주어내리려고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나?

이번에 제가 교육위원이 된 지 2년 되는 동안에 뿌듯한 것은 국정감사 2년 동안에 얻은 소득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우리가 국사교육을 말살하다시피한 것은 교수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 이 자리에 앉아서 국사교육을 단일과목으로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 다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단일과목으로 국사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는 교육철학 내지는 인적구성문제며 셋째, 자금 뒷받침 문제 이 3요소를 부정하는 교육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만드신 자료를 다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노력하신 일곱 분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청회가 자주 있어서 서로 의견개진하면서 아마 하루 이틀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 받아내고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咸鍾漢위원장, 金日柱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 이것이 어느 누구인가 잘못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교육위원

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저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되겠고 또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됩니다. 또 낙후된 교육시설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GNP 대비 6%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4.3%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4.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몇 번 소리 질렀습니다. 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8조원 또는 6조원 투입하고 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30조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왜 교육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현대화시키고 과밀학급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면 바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 들어가는 것을 과감하게 하고 또 약속된 6%를 넣었을 때 반드시 교육이 잘 됩니다. 은행 하나에 8조원 넣으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 교육전체에다가 몇조원을 못넣습니까? 제가 요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조원 내지 4조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왜 못넣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약한 사람이 하려고 노력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보고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바로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출문제, 약물복용, 집단 따돌림, 원조교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투자할 의욕이 생기고 또 투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싶고 세 번째 교단황폐화의 원인이 근래에 와서 가장 큰 원인이 정년단축입니다. 이 정년단축은 반드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수석교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초등교원 부족문제는 중등교사를 대체하는 그것은 안일한 방법입니다. 전근대적인 방법



입니다. 소아과의사가 있고 내과의사가 있는데 소아과의사를 내과 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고 교대정원을 빨리 통계에 의해서 늘려주고 또 중등교사는 지금 넘쳐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러한 것을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교사 잡무를 축소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잡무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이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40만 우리 교육자가 고통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까지 교육시키는 가정을 치면 전부 약 1,500만 내지 2,000만입니다. 1,500만 내지 2,000만의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이러한 교육개혁을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요.

한 사람 이웃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역살이를 가고 또 한 단체가 잘못해서 큰 화를 입고 벌을 받는데 이런 크나큰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면 이 정책을 입안한 정당의 대표가 사과를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장관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한번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풍토가 계속 된다면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책임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오늘 교육을 황폐화시킨데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 나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은 申樂均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교육은 개인이나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과 비례하기 때문에 교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원정책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총체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모두 교실붕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개탄하셨고 그 1차적 원인을 교권붕괴에서 찾으신데 대해서 본위원회도 적지 않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주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아까 盧武鉉 위원님 또 李在五 위원님이 하신 것과 큰 틀에서는 같은 맥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정년단축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년단축 환원주장이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말 총체적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교권이라는 제한된 시각으로만 교육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입니다.

즉 교원의 정년단축이 초래한 부작용이 일시적 혹은 과도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년단축을 보는 근본 입장과 관련해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 尹正一 교수님이 상당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 남은 교사들이 애정과 헌신을 되찾기 위해서 정년환원이 과연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당장의 진통을 잊기 위한 임시방편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교육개혁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정년단축에 대한 평가 외에도 현재 또 앞으로 새로 충원될 교원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획기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교원단체협의대회에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권 확립하고 교원 처우 개선 또 교육 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2000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것이고 또 세계잉여금도 상당 부분 부족한 교육재정에 활용하라고 이미 지시한 것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金貞淑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성비할당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교원 임용에서 성비할당제를 제안하신 인천교대 金在福 교수님께 여

좁겠습니다.

여교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분명 우리 교육계의 또 하나의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비를 할당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 우수한 여교사가 임용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양성 이 고루 교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처우와 환경 개선 또 인식변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진솔 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원종합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金鍾鎬 교수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초등교육 부분에서는 교사가 부족하고 중등교육 부분에서는 교사가 남아도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난립되어 있는 사립대학을 정리하고 몇 개의 국립 또는 공립 교원종합대학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모든 급의 교사를 통일적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 이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점도 같이 이럴 때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선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지식의 변화를 교원 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문, 다음에는 동일한 공감대 속에서만 교원이 양성될 경우 이렇게 다원화되어 가는 시대에서 사교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金日柱간사, 咸鍾漢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세 번째로는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임용 보장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점과 함께 이런 문제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평가 연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자존심과 긍지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우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라고 하면 교수활동과 같은 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의

적 영역도 해당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도 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스템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연령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합리적인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의 질 관리를 정부가 책임지는 근원적인 교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여쭙는 것은 현재도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학교의 평교사들을 평가해서 일정 정도 승진에 반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가 교원의 질 관리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이런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가 시행되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申樂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黃祐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委員 한나라당 黃祐呂 위원입니다.

오늘 교원정책에 대해 진솔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을 위한 교육자대회에 참여해서 교육 일선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의 분노어린 함성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옹호와 여러 가지 사후대책을 약속을 하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입장을 보다 강력히 대변해 달라는 격려가 아울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현장이 이와 같은 정치적인 연계로 이루어졌는가 생각할 때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헌법에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영역에 남아있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오로지 교단을 천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전생애를 교육에 헌신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연계와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까지 일일이 생각하셔야 되게 되었는가 하

는 문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모임이 같은 날 이루어진 오늘이 시점이 우리 교육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국민적인 생각을 가다듬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개혁을 하신다면 교육투자를 대폭 확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적어도 OECD기준의 GNP 6% 이상의 투자를 당연시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은 교사들의 메꾸지 못했던 지식이나 자질이나 자기 개성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교육이 교사들한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또, 그 동안 간접적으로 간간이 실추된 교사들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서 이제는 학교에서 교장이 정말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장관이 부럽지 않은 그런 궁지로 교육을 이끌어어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끝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교육철학이 불분명했는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들이 교육을 백년대계로 생각해서 교육철학을 확립하고 국민교육에 임했던 것과 같은 근본적인 교육철학,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이나 교육발전계획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지난 악몽과 같은 1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육재정은 6%가 아닌 4%대로 떨어졌습니다. GNP가 줄기는 하였지만 교육재정은 가차없이 줄었습니다. 4.1%까지 내려갔습니다. 교원들은 일시에 큰 범죄인처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될 심정으로 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선까지,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아가면서 교사들을 몰아부쳤습니다.

교육철학은 어디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조변석개의 정책만 남발해서 도무지 그 정책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격론에 격론을 거쳤습니다. “제발 1년만이라도 이 계획을 연기해 달라, 한번만 더 생각하자,朴대통령이 정년을 단축했는데 1년 반만에 다시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것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65세 정년을 한번 흔들어놓

으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느냐”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의 정치강행으로 지금의 현실이 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과연 이러한 정책실패를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사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에 가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1회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은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교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딱 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초등학교를 두 번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일생에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패는 그 당해 학생들, 당해 학부모들, 당해 국민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역기능이 강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근차근히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갈 길이 멀다고 조급증에 빠져서 이리저리 헤매고 땀질식의 정책을 하면 다시 더 회복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정년퇴직한 여자 교장선생님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교육이 나무라면 많이 상처를 입어서 가지도 부러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불뎀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보았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눈물이 글썽해 가시고는 “아닙니다. 뿌리가 흔들려서 그대로 두면 고사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1년여간의 문제가 그렇게 영원히 장기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을까 제 자신은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보아지는 느낌은 교육의 위기감에 극도로 학교가 어지러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인현동 사고로 55명의 꽃다운 청소년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흔히들 그 청소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들의 잘못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는 원래 탈선을 하는 법입니다. 저도 자랄 때, 청소년 때 많은 탈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책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실패·교육의 혼란이 이러한 무질서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까지 도래한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웃기를 여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金在福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정년제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년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65세 정년이라는 것은 평생을 바치라는 국가의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에 들어서면 다른 직책 안 가지시더라도 65세로 일생을 바치도록 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존경하는 申樂均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사의 질은 보수교육, 질관리로 해야지 정년을 낮춘다고 교사의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했다고 하면 발상의 큰 시발점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그리고 지금 1만4,000여명이 부족하고 또 당장 내년이 급하다고 6,195명의 중등교사를 보수교육 후 임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물지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대학교수가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우수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우수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더 저급하고 이러한 착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대는 소를 다 포섭하고 또, 고는 저를 다 능가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영아교육,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대학교수보다 더 충실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가 절대로 유치원에서 하루도 강의 못합니다. 그것 절대로 안 됩니다. 중·고등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소정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정과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초등학교에 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대거 6,000여명이나 이렇게 임용했을 때에 앞으로 초등교사의 질에 균일성을 훼손당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겠는가 이 점에 대한 큰 걱정이 있는데 金교수님 이것이 강행이 될 때 이러한 중등교사가 과연 초등교사의 대체성이 있는지 그 점

에 대해서 국민앞에서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서 저는 지나친 법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여왕이 이튼스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께서 뭘 좀 혜택을 주고 싶어서 교장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교장선생님이 여왕께 하께 내가 신민으로 마땅히 폐하앞에서 모자를 벗어야 되지만 학생들 앞에서 모자벗는 예의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교장이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여왕께 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교장으로서 학생들앞에 당당하게…… 여왕께 하께서 오히려 교장 옆자리에 앉아서 모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교장에 대한 국왕의 존경과 권위의 부여가 대영제국을 창출해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의 자리를 정치인이나 또는 행정관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때야만 지금 대거…… 내년에 명예퇴직하겠다는 교사들 제가 매일 만납니다. 그분들이 결코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갖고 명예퇴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자조어린 생각으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교사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장의 확고한 권위를 확립해주는 그러한 연설을 해야 되고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대통령이하 정치인들이 그러한 확고한 자세를 보이면 저는 명퇴하시는 분들 다 마음을 고쳐잡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명퇴를 이미 결심하시고 이제 떠나시려고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리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사들의 복직도 우리가 선별해서 많이 좀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잡고 교단을 굳건한 반석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 그리고 교육재정의 확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정부 여당이 많은 교사들앞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예산이 조금도 늘지 않았어요. 1997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이고 말이 앞서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육정책이 실행되

지 않는 한은 교사들의 동요는 불잡을 길이 없고 동요되는 교사를 계속 새롭게 보충해봐야 교육은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년된 교사의 봉급이 15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오각성하고 국민적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하고 대부분 같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오히려 걱정하는 입장에서 金교수님께 과연 이런 대체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까 그 문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석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시지요.

○傍聽人 張在元 저는 지난 8월말에 서울 온수고등학교 교장에서 정부의 정년단축 정책에 의해서 2년간 손해를 보고 퇴직을 한 張在元 교장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한국교육정책연구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금년 연초부터 거기에 부회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고 또 그 밖에 최근에 퇴직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꼭 퇴직한 사람들 뿐만이 아닌 모든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전·현직 교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가칭 21세기한국교육포럼이라는 NGO를 만들도록 지금 준비중에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이 잘못된 교원정책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환원될 수 있겠구나'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한결같이 그것이 잘못되었고 환원되어야 된다 하는데 뜻을 대부분이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盧武鉉 위원님 말씀과 申樂均 위원님 말씀중에 여기 진술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전부 색깔이 같은 보수적인, 그런 표현은 굳이 안 했어도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교원 정년단축만이 지금 이 나라 교육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

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盧武鉉 위원님의 말씀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의 그런 생각과 申樂均 위원님도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앞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이 교육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저는 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는 젊은 소수의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 나라 교육을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체로 군림을 하고 그밖에 과거에 그 분들의 행태가 뭔지는 모르지만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비판했거나 심지어는 해직시키는데 동조했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제거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풀이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끌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의 목을 찢던 나이든 관리세력 이 사람들은 싹 건어 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까 어떤 위원 말씀대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정책을 과격하게 추진하면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모든 정책은 결정과정과 집행과정과 집행후 과정이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는 목표가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되고 목표를 결정하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전문가 집단, 관련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의 통과과정도 아주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뛰어 넘고 그냥 했거든요. 그냥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교원 정년단축과 노조 합법화가 같이 맞물려 나갔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합법화시켜서 주체로 행동하게 하고, 건어 내지 않으면 이 나라 교육개혁은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 2월 이 정부가 발족하면서 노사정 위원회하고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발표할 때부터 교단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원정년 단축한 것만이 절대적인 현재 이 나라의 교육붕괴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李海瓚 장관이 들어 서면서 스승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촌지근절 정책을 전 교원들이

학생들 앞에 얼굴들고 설 수가 없을 정도의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써붙여라, 가정통신문 내라, 입간판 붙여라, 촌지신고센터 만들어라, 또 반환하는 사람 우대해라, 교장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모독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을에 가서 체벌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시달렸습니다. 당연히 과격한 체벌, 교장이 겁이 나요. 오히려 때리는 것은 젊은 선생이 더 때리지 나이든 선생이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겁이 나서 교장은 항상 다독거립니다. 체벌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법에다가 문안을 넣고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플레이하면서 그 이튿날 당장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못 때린다, 때리는 교사는 폭력교사다 이러면서 대드는데 무슨 재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 잘못하는 것을 다스릴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자도, 말을 안 듣고 머리를 기르고 도망가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될듯 안 될듯 하면서 전교원들이 반대하는 정년단축과 교원노조를 1월9일에 그냥 그대로 정당한 절차없이 합법화시켰어요. 이러니 어떤 선생이, 세상에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놓고 제거의 대상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무슨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열을 쏟습니까?

교사는, 교원은 존중해 주었을 때,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선생님이다 하는 것, 아이들과 학부모와 국가가 존중해 주었을 때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때문에 아이들앞에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 런데 이것을 사그리 갈아 뭉개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교육의 본질을 아는 정책인지, 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 관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바뀐 분들입니다. 과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과거 분들도 실·국장들은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장관이 그렇고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무슨 재주로 그 뜻을 반대하겠어요? 그러한 대통령의 철학, 李海瓚 장관의 철학이 왜 그런지 도저히 저는 납득을 지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환원을 위하고 이 나라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바로 盧武鉉 위원님과 같은 생각, 여러분들과 같은 반대의견을 가진 생각 이런 분들이 잘 조화해서 우리 교육을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교원을 사기양양시켜 주고 정년을 환원시켜 주고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도 밖에서나마 여러 동지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인지를 적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 어느 분을 지칭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함을 지칭하면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明漢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陳述人 金明漢 저는 없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면 金在福 교수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 하세요.

○陳述人 金在福 질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金貞淑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사표를 냈을 때 다른 데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주거이전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두 번째 질의를 성비할당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차별과 연계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申樂均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종합대학교로의 확대 발전에 대한 그 내용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金鍾鎬 교수님께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黃祐呂 위원님께서 중등교사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사 임용문제가 강행될 때 그 대체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히 도서·벽지 지역에 교사로 임용된 분들이 도시지역에 교사가 부족하니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같은 데 많은 분들이 사표를 내고 가기 때문에 소위 교사공백 상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은 올해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

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런 도서·벽지에 중등교사를 약 500여명씩 뽑아서 다시 보수교육을 시키고 또 그 전에 이미 예·체능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서 또 보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올해 중으로 다시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교사의 정규교사 자격증을 수여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바로 또 사표를 내고 내년에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또 도시지역으로 올 경우에는 그 지역은 다시 교원공백 상태가 재개되고 그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지 않는 어떤 묘책을 찾더라도 그것을 한시적으로나마 좀 제한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범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때만해도 지금은 위헌소지때문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교사가 한번 사표를 내면 다른 데 가서 다시 교사로 임용시험을 보든지 할 때는 2년 이상을 제한을 하는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나의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비할당문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모든 면에서 접셔서 상당히 해박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저희 자신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할당제 문제가 더군다나 두 분 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미국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속에서 보면 처음에는 남자교사들이 대개 초·중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남자교사들은 거의 산업전선으로 나가고 여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초등교사로 왔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대우가 일반 산업분야만 못하니까 여자들도 요즘엔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은 초등학교로 별로 안 오고 그냥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교직으로 오는 경향이 미국의 경우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사양성에서의 교원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교사가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동들의 고른 인성 고른 어떤 성격발달 이런 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모두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이 남녀의 고른 어떤 접촉과 또는 어떤 지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한 성으로만의 지도가 초·중등학교가 모두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申樂均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꼭 할당제로만 하는 것이 아닌 대우로다가 남자교사들에게 유인책을 써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당연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학교교사들의 봉급 또는 대우가 다른 산업체나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묘책이 있다면,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교사직을 선호하고 온다면 더욱 더 금상첨화겠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비록 법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다른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교육대학은 남녀 성비할당으로 해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지금 음악·미술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대학에 이것 좀 재고하라는 공문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임용에서는 그것이 전혀 고려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초등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모두 당분간 임용이 될 것입니다.

전에 임용시험이 한 86% 정도 합격했을 때 서울이나 인천지역은 10% 미만의 남자만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 어느 해에는 2명만 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 줄 알면서 그냥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로서 교육종합대학교로의 확대발전방안에 대한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장점만 간단히 얘기하고 金鍾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중등교사나 초등교사의 경우에 우리는 연계성과 공동체적인 의식이 교사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공동체의식이라고 할 때는 멤버십과 프렌드십을 공동체의식의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더군다나 초·중등학교에 의무교육이 정착되고 유치원교육이 공교육화되고 농어촌 소규모 초·중등학교의 통합학교 설립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또

아까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공성 여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단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계성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만일에 교육종합대학교로의 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몇 가지 장점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행정이나 교육내용을 교원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하고, 금방 얘기한 공동체적인 의식과 인간적인 교원적인 공감대 형성이 유리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등의 연계교육과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복수자격 취득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라든지 다른 지역의 모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일체화된 속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일 이것을 별도의 학교로 뽑는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했을 경우를 본다면 만일 국가에서 예산의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지금 많은 교육대학이 시내 중심지에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 하나만 예를 들어도 서초동의 가장 황금짜라기 땅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대학이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만 하다면, 또 국회에서 해준다면 종합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申樂均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폭이 좁아지는 교육 또는 그런 안목을 가진 교사를 양성할 것이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하나의 종합화를 형성시켜 놓으면 그 폭 좁은 문제는 현재 교대가 가지고 있는 폭 좁은 문제를 훨씬 더 넓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견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黃祐呂 위원님께서 중등교사 보수교육으로써 초등교사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현재와 같은 보수교육으로는 어렵다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가능한 방안은 이따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

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에서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다릅니다. 우선 아까 黃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22쪽을 읽어 보시면 아주 개략해서 초·중등교육의 차이와 초·중등교사의 역할이 이런 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교원 정년단축이 이루어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초등교사 수요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교육부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법에 의하면 33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초등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초등교사 교육에 필요한 그만큼 학점과 시간, 그만큼의 보수교육을 시키고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학점수 70학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교육부는 들어 주었습니다. 들어 주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70학점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교사로 내보내는 안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은 시간에…… 또 초등교사는 담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8월31일까지는 정규담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빨리 내보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어려운 실험·실습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다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체현상을 막고, 그러면서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다면 저는 학사편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초등교사는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상당히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사범대학 졸업자…… 지금 교대는 학사편입제도를 확충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5%도 금년도부터 재외국민이라는 조항과 연관시켜서 특별하게 한정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법을 좀 개정해서 그것을 확대하면, 그래서 적어도 사범대학 4년 졸업자가 교육대학에 와서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 초등교사가 되는 데 필



요한 모든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나가면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 졸업생들의 어느 정도의 적체를…… 올해 100 대 1 이상이 되었으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짧은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조금은 협조적인 면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초등교사 수요를 상당히…… 그들이 교육받은 교양이나 이런 것은 비슷할 테니까 그런 교육받은 인간을 짧은 기간에 교사로서 양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초등교육의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올해의 경우에 5%, 한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 편입했는데 그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그것은 실패의 우려가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보수교육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지금 金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이런 의견이 나오시면 지금 마스크에서도 와서 중계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퍼질 효과·영향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동할 때 사범학교 졸업생들은 한 2년 의무연수를 두었지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시험을 쳐서 다시 면허를 따서 하겠다는 데 그것을 막는 것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은 어느 기간을 정해 놓아도 됩니다마는……

그리고 성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이 왜 많느냐고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성이 초등교사가 되려고 지망하는 우수한 사람이 없어서 여성이 이렇게 많아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이 왜 인기가 있느냐, 커트라인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등교사들은 적체가 많아서 사대에 가봐야 취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2만명 이상 적체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중등교사 양성체계를 정말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것 있으나마나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대체교사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한 초등교원을 메우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대만 나왔다고 해도 제가 그나마 염려를 덜 하겠어요.

그런데 사대 나온 교원자격자들이 아니에요. 일반교직과목으로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이 많다는 것을 염려해서 남성을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섞는다, 몇 십%를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25%를 할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5%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교육의 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5%로 할 때도 군대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올릴 생각을 해서 좋은 남학생들을 유인해 올 정책을 쓰셔야지, 막연히 할당을 한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른다고 해서 사내아이들이 다 여성화되니까? 교육을 여교사가 한다고 그래서 여성화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초등교육은 여성교사들이 많습니다. 다 이런 이유지요. 그리고 초등교육은 여성이 더 자상하고 섬세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성교사가 전혀 없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당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종합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라는 것은 더 높은 학위를 갖고 싶어하고 또 면허증도 2종·3종 면허보다는 1종을 갖고 싶어하고, 이상하게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는데 과잉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집어넣어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너는 초등학교 교사다, 너는 중등교사다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오히려 좀더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초등교사가 자질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중등교원 양성체계를 완전히…… 본위원의 평상시의 생각은 일반 사립대학의 사범대학은 적체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차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이 국립으로 다 해서 국가관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심어 주고 교육관도 투철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많은

혜택을 주고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간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가짐에 적어도 자기가 대학을 지망할 때 '나는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갔어요. 각오를 하고 4년 동안에 국가로부터, 교육대학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과정을 다 파악해서 가르칠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이런 초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금방 교직과목 한 여섯 과목 받아서 교사가 된 사람하고는 전문성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략적으로 65세 환원을 하자고 주장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교육부가 아주 구차하게 내놓고 실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데다가 발표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없애버려야지요. 없애버리고 65세 환원을 해라, 이렇게 해도 될까말까인데 단기적인 방책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교육부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위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졸속한 행정이 어디 있냐고 욕을 먹고 교대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틀린 줄 알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시는 어른들께서 내놓으시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金許男委員 저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申樂均 위원도 나갔고 나 혼자만 여기 앉아 있는데 나도 지금 6시까지 이것이 다 끝날 줄 알고 약속을 했는데 나까지 없으면 한나라당만 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조마조마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도 5분 하라고 해서 나는 5분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막 떠들어대면 이것이 무슨 꼴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申樂均 위원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나라당 혼자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할 말을 간단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金貞淑委員 위원님 죄송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교수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鍾鎬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金鍾鎬 金鍾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쪽에는 다 계신데 한 쪽에는 안 계셔서 처음에 질의를 하신 盧武鉉 위원님게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선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단의 여교사 편중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에 김종섭 시사토론에서 90분간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성비를 제한해야 된다는 토론자로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성비제한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토론 결과 전국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비는 교육대학에서부터 적당히 할당해서 모집해야 된다'는 의견이 78%였고 '성비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28%였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대강……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정확한 표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강 이것이 국민들 의견의 일부라고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비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모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논리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그렇게 모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는 27명의 선생님 중에서 남자선생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金貞淑委員 교장은 누구예요?

○陳述人 金鍾鎬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金貞淑委員 교장이 누구냐고요?

○陳述人 金鍾鎬 물론 교장선생님은 제가 안 봤지만……

○金貞淑委員 교장·교감은 여자 안 시키잖아요?

○陳述人 金鍾鎬 교장·교감을 왜 여자를 안 시키니까?

○金貞淑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陳述人 金鍾鎬 그 다음에 또 성비제한을 하면 자꾸 실력이 제한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대학에서는 총점 만점에서 10점 차이가 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申樂均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원종합대학에서 할 경우에 다양화가 문제가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다양화는 전문성에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화지, 전문성이 없는 다종의 다양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지식, 소명의식, 인간애, 이것까지를 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종합대학에 넣었을 때 소명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에서 국립이나 공립의 교원종합대학화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다음은 朴永菽 연구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시지요?

○陳述人 朴永菽 예. 지금 남녀 구성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혹시나 해서 통계연보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전체 교원수가 44만2,560명 중에 전체 여교원수는 20만4,247명입니다. 비율은 46.1%입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고 개인의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빌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원정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확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적격교사를 퇴진시킬 수 있는 질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요구를 절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쾌한 장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스스로가 내가 자질이 미흡한가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러한 체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구성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이라면 다 담임을 맡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교육의 논리가 다원화된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학교사회라는 곳은 점점 다원화된 그러한 인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의 하나입니다. 교직의 추세입니다.

그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가 대응해 나가

야 할 그러한 방향은 무엇이나 하면 교사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일을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사회에서 몇 시간을 내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가 수행해야 할 직무수행 기준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원들 스스로에 의해서 공감대로 만들어진다면 퇴직장치도 자정장치에 의거해서 스스로 되고 그리고 나는 교과전담을 하지 않고 담임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맡아야 할 수업시수는 몇 시간, 내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와 교직원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연구소에서 교원정책에 관련한 DB를, DB라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과연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예상해보는 작업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원의 1인당 수업시수가 몇 시간인지 학급당 학생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아주 기본적으로 교원정책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든 교직원, 정책입안자 그 누구도 이 자료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어떤 현상중의 하나로 답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교원과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내부에서 교원정책에 관한 현상을 논의하고 있지 교원정책과라고 하는 것이 시·도교육청별로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원정책의 전문가가 없다는 얘가지요. 초등교육과에 대한 전문가, 중등교육과의 전문가는 있어도 초등교육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어떠한 토론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교원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DB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 DB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과학적인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을 모든 국민 앞에 공신력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원한다면 그 자료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자료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현상을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만들어갈 작업이 기다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교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수업시수가 너무나도 격차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마련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다 구분이 되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시지역은 26.6시간, 도지역은 26.8시간, 중등의 경우에는 시지역은 18.1시간, 도지역은 16.4시간으로 중등교원의 수업시수는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보다 낮습니다. 20시간 미만에 있고 초등은 20시간 이상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30시간도 넘는 그러한 과다한 업무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을 담당하는 수업시수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고 당장 7차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2000년도 3월부터 실시되어야 되는데 초등교사인 경우에는 학교에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교육과정을 딱 주고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학교 단위별로 교육과정 전문가, 교직원, 교장선생님, 행정가, 학부모가 모여서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그 규정 내에서는 시·도별로 교사가 무엇을 담당해야 될 것인지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얼마를 맡아야 될 것인가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히 집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토론을 열어서 표준수업시수를 정한 다음에 수업시수가 과다하게 많은 교원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어떤 보상을 주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원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또 적정수업시수를 담당할 수 있게끔 좀 널널하다 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교직원 모두가

교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다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辛相祚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辛相祚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상당한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盧武鉉 위원님 말씀과 李在五 위원님, 申樂均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盧武鉉 위원님께서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붕괴가 되고 있는 것이 정년단축이나 정부의 정책 잘못에서만 유래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저도 40년 교육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지금과 같은 바닥권을 헤매는 것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밤잠을 안 자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따져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원에게도 문제가 있고 학생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육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인 원인을 진단해서 접근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다만 오늘 이 자리가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부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결코 편견이나 어떤 좁은 시각으로 말씀 올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정집단이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고령교사들이 저항세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정년단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는 심각한 우려의 말

숨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원집단을 고령교사는 개혁저항세력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특정집단은 교육개혁세력이다 이런 이분화 해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어떤 집단은 교육개혁세력이고 어떤 집단은 반교육개혁세력이다 이렇게 안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주 적은 부분에서 말씀 올리면 학교에서 교장이 한 학교를 경영하면서 교장은 욕심이 있습니다. 보다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요구도 하고 방침을 제시하고 하면, 저도 자연히 이분화 해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는 비교적 나이가 든 중견 이상의 선생님들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좀 헌신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젊은 교사분들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젊다, 또 이렇게 이분화 해서 말씀드리서 죄송합니다. 좀 학교를 잘 하려고 할 때 그 분들이 교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지금 교장이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상유지로 나갑니다. 이런 교단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어느 특정집단만이 개혁세력이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전교조의 개혁의지를 교장들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이것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여러 가지 교섭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그러한 것을 모두 개혁이라고 보고 지금 순순히 수용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지금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교장들도 물론 개혁의지를 수용 안 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집단만이 개혁의지를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는 안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가 정년단축을 찬성한 이유나 변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학부모나 학생은 성실하고 전문성이 높은 그런 교사를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이 높고 책무성이 높은 교사는 전부 젊은 선생님

이고 고령교사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젊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왜? 학생은 자기 부모보다 젊은 선생님이 좋거든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초등학교는 30대 교사만이 남고, 중학교는 40대 이하의 교사만이 남고, 고등학교는 50대 이하의 교사만 있어야지 그 이상의 교사들이 있으면 다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까 金日柱 위원님도 학교라는 것이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은 자기 담임 한 사람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라는 것이, 학교라는 것이 담임 한 사람의 역할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관리직도 있어야 되고, 부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시기의 어느 교사부터 정년 회복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던지셨는데 저는 당장 65세로 환원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李在五 위원님 하고 申樂均 위원님 질의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적격 교사를 교직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나 적격하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 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계에도 지금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원의 사기를 올리고 교권을 회복하고 한다고 해서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뒷전으로 돌리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심각한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우리 교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분발하고 지금 여기에서 위축되지 말고 일어서서 교육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교원 스스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질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선생님들 1년간 근무

한 성적을 보고 또 요즈음은 자기가 자기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 우, 미, 양 이렇게 해서 수가 20%, 우가 40%, 미가 30%, 그리고 양이 10%인데 이 양은 안 주고 미에다 합해서 미를 40%를 해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양을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개인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소위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학교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그야말로 승진대상자들은 첨예한 하나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주 중요성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경을 쓰고, 승진대상자 서열에 오르는 분만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분들은 평가의 성적이 낮아도 아무런 보상이나 질책의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젊으신 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평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승진대상자에게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 관리에 대한 평가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朴永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질 관리방법이 쉬우면 벌써 도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십니까라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질 관리방법, 부적격자 퇴출방법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되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이 방법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교장, 교감이 평가권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평교사도 참여하는 어떤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그래서 소위 교장, 교감의 평가와 동료평가, 자기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양도 주고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기회를 주어 가지고 연수를 하게 하고 연수기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점수를 받게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올 때는 어떤 퇴출의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소위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까라는 이렇게 되면 교사들을 묶어 버리는 이런 데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다만 건강문제는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교단에 설 수 없는 부적격자는 충분히 퇴직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 관리는 저도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사를 평가해서 부적격자를 퇴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교원집단에 대한…… 뭐 평가는 누구나 다 받기 싫어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제기되었을 때 또 상당한 반항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신중히 대처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 尹正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尹正一 4시간 반동안 앉아 있자니, 차대한 잔 안 주시고 무슨 고문 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참 아주 중요한 공청회를 하는데 이쪽 줄은 딱 한 분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답변할 때도 또 한 분만 앉아 계시는군요.

아까 盧武鉉 위원께서 질의 같기도 하고 질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무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전문가집단만 와 가지고 편견이 있지 않느냐, 문제만 꼬집어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괜히 왔구나. 나도 차라리 잠실벌에 가서 내자리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될 것인데 괜히 왔구나 후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바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인데 여기가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이고 청협,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교총 그리고 하이텔이 후원하고 그래서…… 학교가 붕괴가 되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제가 일본 가 있는데 빨리 와서 운영위원장 맡아라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학교 바로 세우려고 6월29일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기구를 대표해서 왔는데 왜,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바로 세워서 우리 아들 딸들 교육 제대로 받게 하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차에다 붙이고, 전단도 뿌리고, 별 것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붕괴와 교권실추가 정년단축 때

문만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辛교장선생님이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년단축에 대한 것이고 교원수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지 주제가 학교붕괴였으면 학교 붕괴원인, 수요자 중심교육, 또 정치·경제 논리에 의한 것, 그리고 정년단축 여러 가지 꼬집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는 얘기고 필요없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붕괴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년입니다. 정년단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핵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정년단축을 거들었는데 왜 그런 것이냐? 일반국민들이 왜 정년단축을 바랐느냐? 제가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를 물었느냐 하면 당신 자녀의, 아들의 담임교사로서 희망하는 특성이 뭐냐, 딸의 담임교사로서 희망하는 특성이 뭐냐? 성별, 연령, 그리고 출신학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별, 두 분 여성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성이라고 한 답변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별이 거의 다 남성입니다. 또 연령, 거의 다 30대입니다. 40대 초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대출신이나 비사대출신이나? 대개 사대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한다면 그것 따라가야지요. 남성 위주로 해야 되고 30대 위주로 해야 되고 40대 전부 다 퇴출시키고 해야 되지요. 여론을 물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을 것이냐?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의견을, 국방에 대해서는 군인의 의견을.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아는 사람들.

그런데 전문가가 왔다고 '야, 이것 전문가 얘기만 들어서야 되겠느냐, 학부모들의 의견은 이런데' 이것은 좀 저는 수긍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盧武鉉 위원께서 본질의 문제를 아까 논의하셨습니다. 교육개혁을 하고 그리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본질에 충실했으면 이런 문제 절대 안 생깁니다. 본질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논리, 정치논리 이것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에 충실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在五 위원님께서 부적격교사에 대한 문제, 제가 다른 데서 그런 것을, 학술진흥재단에서 대토론회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이 정년을 65세, 70세 이렇게 두는 것은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치를 개발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업세계에서는 자격증이 5년간 유효하고 5년 넘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격증은 한번 받으면 평생 가요. 마치 자동차운전면허자격증 한번 따놓고 7년동안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녹색면허증 그냥 나옵니다. 이것과 똑같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더 좋은 자격증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두고 그리고 적절한 연수를 해가면서 무자격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도중에서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 조치를 하면서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申樂均 위원님께서 정년 65세, 정년환원이 근본적인 처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년 65세 환원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붕괴, 교육 황폐화, 교실판괴 이것 도저히 치유 못 한다. 왜?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을 해보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회피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땀통식밖에 안 되고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점점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년 65세 하는 것은 평생 동안 평생의 직장으로 알고 사명감을 다 가져라. 사실은 바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하지 말고 조금 하다가 물러나서 다른 것 해라 이렇게 하면 정년단축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년 65세 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載善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崔載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지 생각이 갑니다마는 이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盧武鉉 위원님께서 한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위기를 초래한 그것이 정말 정년단축 때문이나, 그것만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辛相祚 교장선생님도 말씀 계셨고, 尹正一 교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년단축 그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년단축 과정에서 빚어진 교원경시풍조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존경과 신뢰가 없을 때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정년단축 과정에서, 특히 정부가 정년단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론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사회 끌어내리기 작전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까도 여러번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과연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선생님들을 끌어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교육은 교권이 무너지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없을 때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정년단축이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실붕괴와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정년단축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교원경시풍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은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논리가 전체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학교의 교육상황이 심각하고 교육개혁이 불가피한데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은 공감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개혁은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개혁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과거처럼 푹푹 외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개혁을 위해서 왜 선생님들의 나이를 잘라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그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누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원정년단축이 불가피했지 않느냐 하는 그 논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비약된 논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학부모들이 왜 정년단축을 거들었느냐? 냉담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동조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령교사를 퇴출시키고 젊은 선생님 두세 명 더 쓰고,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선생님 해마다 2,000명씩 늘리고, 교육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싫어할 국민들 어디 있어요? 학부모들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나 국민들의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년단축을 했을 때 젊은 선생님 두세 명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토론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그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다.

정년단축과정에서 모든 신문이 정부의 입장에 사실은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언론에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공황이다,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이러한 학교의 현상과 실상을 정확히 안다면 '아, 정부가 교원정년 정말 잘못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가 고령교사를 퇴출시키고 젊은 선생님 두세 명 쓰겠다, 남은 돈으로 학교환경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냉담하고 선생님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냐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담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것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전체를 놓고 교육본질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정부가 과연 그러한 이기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학부모들에 동조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교육 정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정년 원상회복을 한다고 치자 그럴 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盧武鉉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년단축으로 교단을 떠나신 선생님들은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분들중에서 정년이 환원되었을 때 나는 다시 마저 채우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전교조 선생님들 다 복직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능력있는 분들은 복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지금도 기간제교사로 모셔왔는데 정년 원상회복해서 다시 능력있는 분들이 만약에 62세로 떠났다면 선별적으로 다시 복권해서 65세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년 원상회복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安相洙委員長님도 말씀하시고 黃祐呂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교원정년 65세는 교원 존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자존심입니다. 교원정년 65세로 환원시켜 준다는 것은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것이 바로 교육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권위가 서지 않고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회생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을 바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李在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와 외부변화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이 컴퓨터나 영어같은 것을 잘 못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시대변화나 외부변화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연령을 잣대로 자르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학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貞淑委員** 위원장님 기회가 중요하니까 한 말씀만 간단한 것이예요. 의견이에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의견이 제시면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교원정년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신 학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65세가 넘어서는 수업일수같은 것을,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한 3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이면 63세부터 준비를 해간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를 3분의 1을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64세라면 2의 1로 삭감을 하고 그렇게 수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시간을 주면서 명예퇴직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급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에서 미리 들어온답니다. 연금으로 보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퇴직준비를 시키면서 실제로 매월 받는 급료에는 변화가 없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도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용어자체가 존경의 의미 가득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그 자체가 우리는 존경한다는 명예직입니다. 그 명예를 자시고 사시는 소명감으로 사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저희들은 정말로 연령이라는 잣대로 무 자르듯 잘랐습니다.

옛그제만 해도 한 교무실내에 은사님과 제자가 함께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그런 다정한 모습 그리고 사제간에 함께 하면서 질서가 예절이 그대로 지켜졌던 교실이 이제는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왕 이렇게 된 것 이제부터 다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자격교사, 부적격

교사 명예로운 퇴출문제 이것도 어찌보면 사기진  
 착책의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참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놓으신 교육종합대학교문  
 제 앞으로 4+2문제, 초·중·고·유치원교사까지 한  
 캠퍼스내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 이것도 저희가 연구해 봄직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거의가 다 합  
 의하는 것은 65세로 환원해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 교원의 사기진착책과 무너지는 교단  
 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길은 없다는 말씀인 것 같  
 습니다.

감사하게 거두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국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공청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도 드리고  
 싶고, 굴도 드리고 싶지만 이 위원회 규정이 그렇  
 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문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한 열심히 질의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오랜 시간동안 방청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방송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원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出席委員

咸鍾漢 金貞淑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 黃祐呂 盧武鉉 薛勳  
 申樂均 金日柱 金許男

○出席專門委員

首席專門委員 尙元鍾  
 職務代理 金基尙  
 立法審議官

○出席政府委員

教育部  
 學校政策室長 沈珖漢

○政府側參席者

教育部  
 學校政策企劃官 金正基

○出席陳述人

慶北大學校教授 金明漢  
 仁川教育大學校教授 金在福  
 서울教育大學校教授 金鍾鎬  
 韓國教育開發院員 朴永菽  
 研究委員  
 서울고척高等學校長 辛相祚  
 學校  
 學校바로세우기실천 尹正一  
 연대運營委員長  
 韓國初等教育長 崔載善  
 協議會

○其他參席者

전서울은수고등학교장 張在元